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Gyeonggido Namhansanseong World Heritage Centre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 세계유산의 교육현황과 전망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14:00~17:00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6층 회의실

유튜브 채널명 '세계유산 남한산성 Namhansanseong'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9월 25일 14:00~17:00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6층 회의실(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

시 간	소요 시간(분)	주요 내용		발표 및 토론자
14:00~14:10	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조두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책임)
	3	환영사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3	축 사		**장덕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장)
14:10~14:25	15	**기조발제** - 세계유산과 교육 (뮤지엄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14:25~14:40	15	세션1	**주제발표 1**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교육현황과 전망 (뮤지엄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백진주**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
14:40~14:55	15		**주제발표 2** -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교육현황과 전망 (세계유산본부 교육운영 중심으로)	**허진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관)
14:55~15:10	15		**주제발표 3** -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교육현황과 전망	**강도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유산활용팀 학예연구사)
15:10~15:20	10	휴 식		
15:20~15:35	15	세션2	**주제발표 4**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현황과 전망 (뮤지엄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도미솔** (백제세계유산센터 학예연구사)
15:35~15:50	15		**주제발표 5** -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교육현황과 전망 (전시관 운영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중심)	**이홍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15:50~16:05	15		**주제발표 6**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교육현황과 전망	**박진재**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팀장)
16:05~16:15	10	휴 식		
16:15~17:00	45	**토론** -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과 교육을 위한 제언 좌장 : **한숙영**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ICOMOS 이사) ▶토론자		
17:00	-	폐회		

성 명	소 속	지정토론	시 간
신영주	수원지기학교 교장	주제발표 1	5분
길지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주제발표 2	5분
박제광	건국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주제발표 3	5분
김안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연구원	주제발표 4	5분
김수환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학예사	주제발표 5	5분
심준용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	주제발표 6	5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CONTENTS

환영사

축사

기조발제 세계유산과 교육 – 뮤지엄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귀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주제발표 ❶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백진주 |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

❷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허진이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교육 현황과 전망
강도현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학예연구사

❹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현황과 전망
도미솔 | 백제세계유산센터 유산관리팀

❺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교육현황과 전망
이홍주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❻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현황과 전망
박진재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팀장

토론
신영주 | 수원지기학교 교장
길지혜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박제광 | 건국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김안지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연구원
김수환 |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학예사
심준용 |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기조발제

세계유산과 교육
- 뮤지엄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기조발제

세계유산과 교육
- 뮤지엄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들어가며

지난 반세기 동안, 유네스코는 전 세계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1])를 지닌 특별한 유산들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0년 9월 현재, 167개국 1,121건의 빼어난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류가 창조한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이를 공유하고, 지키고 보호하여 후세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의 개념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2]'이라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유산이라 한다면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의미이며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이 훼손이나 망실로 인하여 소멸된다면 전 인류의 유산에 있어 크나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유산중 일부는 독보적인 특성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가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라고 세계유산협약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히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전시하고 미래 세대로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어떤 유산이 탁원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뜻은 그 유산이 사라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 된다는 의미이다.

2) (원문)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유산교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데 박물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유네스코가 2015년 제정한 박물관 관련 규범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에 있어 박물관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교육

세계유산교육 사업은 지난 1994년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세계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라는 특별 프로젝트로 발족하였다. 미래의 정책을 짊어지고나갈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데 참여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대한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능동적 대처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류 공통 유산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인식하고 세계유산과 더불어 자신들의 유산이나 다른 문화의 역사와 전통, 생태계의 가치 그리고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와 유산보존전문가들이 교육과정에 세계유산교육을 연계하고 각 지역사회의 세계유산지역에서의 과외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효과적인 교습교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교육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현 교과과정에 유산교육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넓은 의미에서 유산을 조망해보는 즉, 단순히 역사나 지리의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유산을 바라보고 유산의 관련 주제들을 다루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협동학교프로젝트(ASPnet)[3]를 활용하여,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정책결정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유산 청년포럼, 중등교원을 위한 세계유산 교육 키트, 파트리모니토 세계유산 만화시리즈, 교육키트를 활용한 교육자들의 훈련 세미나,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학습 및 워크샵, 컨퍼런스, 세계유산 볼런티어사업 등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중요 도구중의 하나인 청소년 세계유산 교육키트는 1998년에 개발되었는데,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역유산, 국가유산,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키트는 기본적으로 다분야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세계유산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학교 교과에 적용시킴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37개 국어[4]로 번역이 되어 왔으며 한국어판은 2007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3) 유네스코 협동학교 프로젝트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는 1953년 유네스코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2020년 9월 기준 182개국에 11,500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다.

4) 청소년 세계유산 교육키트(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Kit)의 다른 언어 버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싸이트에서 찾아

발간하였다.

세계유산교육 프로그램의 또다른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는 세계유산 유스포럼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문화간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995년 노르웨이 베르겐(Bergen)에게 1차 유스포럼이 개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0여개의 유스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의 목적은 세계유산과 관련된 경험을 학생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을 만나 그들의 유산에 대해 배우고 공통의 관심에 대해 토론하고 유산보존에 있어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교재에 대해 토론하고, 청소년 세계유산 교육키트에 기여하고, 향후 세계유산 교육활동 네트워크를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주최국에서 사전 부대행사로서 세계유산 유스포럼을 개최하여 왔다. 이 포럼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들이나 국제자문기구의 대표들을 만나 세계유산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시 청소년대표가 그들의 논의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회원국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세계유산 파트리모니토 만화 시리즈도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2002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세계유산을 소개하고 세계유산이 겪고 있는 위험과 새로운 해법을 만화형식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토리는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파트리모니토 만화시리즈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선발과정을 통해 뽑힌 세계유산 스토리들이 10개가 넘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져서 유네스코 협동학교네트웍이나 세계유산 행사시에 배포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창작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교육 프로그램중의 하나는 1996년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학과 유산 유네스코 포럼〉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청년의 역할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교 대상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유네스코본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차원의 협력을 유도하여 청년들에게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상호지원 및 결속을 강화하는 운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논의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며, 워크숍이나 워크캠프를 개최하고 다양한 책자발간을 통해 세계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네스코에서는 박물관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문화유산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국제박물관협회) 등 국제적인 NGO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볼수 있다. (http://whc.unesco.org/en/educationkit)

세계유산과 박물관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지역으로 알려진 도시나 지역에는 8,000여개의 박물관과 유사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유산지의 해석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박물관의 유물을 소장하기도 하며, 유적 박물관 자체가 아예 세계유산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최근에 세계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적 박물관에 대한 기대도 다양화 되고 있다. 단순히 유물들을 보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유적지의 통합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교육과 대중인식 증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하며, 유적의 보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11월, 유네스코는 ICOM(국제박물관협의회[5])와 공동으로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6]〉라는 박물관과 관련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권고문은 박물관은 과거와 같은 학문적으로만 깊이가 있는 학자들의 집합소 혹은, 유물들을 모아놓은 창고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적 교류와 창의성을 자극함으로써, 교육,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박물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이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 세계유산의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증가하는 문화유산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물관은 지역에 있어 해당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려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메시지를 전달할수 있는 최상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박물관 혹은 관련된 유적 기관은 고고유물의 보관자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연구에 집중된 유물의 전시가 항상 세계유산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유네스코는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 문화 또는/혹은 자연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나 특별해서 국경을 넘어 온 인류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많은 세계유산지에서 해당 유산이 지역적, 국제적 맥락에서 어떠한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방문객들은 매우 적다. 세계유산의 좀 더 광대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문화간 대화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세계유산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5)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은 세계 각지의 박물관과 박물관 업무를 진흥하고 개발한다.

6) UNESCO,『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2015

이러한 차원에서 박물관은 세계유산지역의 삶과 역사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종 세계유산은 살아있는 신앙의 성지이며 많은 지역민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다. 과거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재의 개념은 더 이상 주효하지 않다. 이제는 유산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세계유산은 유산에 얽힌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다. 마치 그림속 바닥에 그려진 숫자는 보기에 따라 6일수도 9일수도 있다. 둘 중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똑같은 유산도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향후 박물관은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들을 발굴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세계유산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자로의 역할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화재, 즉 부동산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종 등재된 유산의 관리의 총체적인 그림 속에서 세계유산과 관련된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수집품들은 유물과 재료와 기술의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다양성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보존 노력이 필요하며, 그 수집품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물들이 환경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의 특징을 이루는데 이 유물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세계유산지역의 다양한 유물들이 과도한 습기, 해충들에 의한 피해, 태양광과 같은 자연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사유로도 위협받고 있다. 세계유산지역의 박물관 종사자들은 무분별한 관광으로 인해 이미 많은 과제와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적 박물관과 유관 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용 자원과 훈련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역 기반의 유적 콜렉션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도시와 농촌의 유적 센터는 적절히 훈련받은 직원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재정적 어려움은 박물관들의 자립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그리고 국내, 국외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지역에 있는 유물 콜렉션들을 보존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세계유산이 탄생하기까지 적용된 전통기술들의 노하우와 장인들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아서 지속성을 잃기 쉽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에서 세계유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숭고한 사람들이 있지만, 종종 고립되고 그들의 특별한 경험과 지식들이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불행이도 매우 제한된 사람들만이 세계유산이 주는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단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물관과 기관들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세계유산교육과 참여의 촉진자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지난 2012년 세계유산협약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역커뮤니티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2년 제2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다페스트 선언에 4C[7]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에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섯 번째 C로 공동체(Community)를 추가하였다. 지역 공동체는 점차 가속화되어 가는 세계화속에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등재의 혜택과 동시에 세계유산을 방문하고, 세계유산지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 세계유적지역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유산이 주는 대표적인 혜택이지만, 동시에 연관된 모든 사회계층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속에서 세계유산을 지킬 것인가? 즉, 세계유산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윈윈 전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과 주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유산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있다.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주민들과 유산들의 상호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박물관의 중요 임무중의 하나는 지역 공동체에게 특별한 정체성과 그들만의 역사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박물관은 세계유산지역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박물관과 세계유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그들이 세계유산과 관련된 무형의 가치들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보존과정에 있어 포용적인 접근방식이 적절하다. 이러한 포용적인 접근방식은 박물관이 갖추어야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창의성을 지키고, 지역의 유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라. 위기에 대비하는 박물관의 역할

최근 세계유산과 그 인근 박물관이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대상이 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유산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던지는 상징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이 인류역사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 유산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우리 인류 공동의 의무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및 문화기관에 대한 의도적인 폭력인, 문화적 말살(Cultural Cleansing)에 국제사회는 적극 대응하여야

7) 세계유산 전략목표 5C : 신뢰(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공동체(Community)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히, 외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 세계유산지의 박물관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지침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지의 박물관들은 지역사회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적절히 할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의 시사점

유네스코 지난 2015년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ICOM과 협력하여 박물관과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권고문을 제정하였다. 다수의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권고문이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채택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유네스코 제191차 집행이사회(2013.4)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새로운 규정 제정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면서 유네스코가 1960년에 제정한 〈박물관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문[8]〉 및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과의 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의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예산으로 초반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운영비용을 현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들이 유산보존 및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비롯하여 사회통합, 문화간 대화 증진에 있어 박물관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60년 권고문은 박물관의 접근성만을 다루고 있어 박물관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역할 등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9] 역시 문화재 반환이 주목적인 바, 동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협약의 채택을 이끌어 냈다.

이 권고문은 기존의 박물관 규범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1960년 권고문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해서 반세기가 지난 2015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시대상을 반영하여 박물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1960년 권고문에 포함된 박물관의 정의[10]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 이란, 각종 방법에 의하여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의 물품들과 표본을 유지, 연구 또는 확충하는 것, 특히 이것을 대중의 오락과 교육을 위하여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반적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항구적 시설 즉 미술적, 역사적, 과학적 및 공업적 수집, 식물원, 동물원과

8) 박물관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ndering Museums Accessible to Everyone, UNESCO, 1960)

9)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1970)

10) 1960년 권고문의 박물관의 정의(원문): the term 'museum' shall be taken to mean any permanent establishment administered in the general intere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studying, enhancing by various means and, in particular, exhibiting to the public for its delectation and instruction, groups of objects and specimens of cultural value: artistic, historic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llection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nd aquariums.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2015년 권고문에는 박물관의 정의[11]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이란 "교육, 연구, 향유를 목적으로 인류 및 환경의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고, 사회 및 그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항구적 비영리 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류의 자연과 문화 다양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유산의 보호, 보전, 전승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과거에 비해 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 권고문에서는 박물관의 주요기능을 보전, 연구, 소통, 교육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박물관의 전통적인 고유기능이라고 평가되는 보전, 연구 이외에 소통을 추가한 것이다. 권고문에서는 소통이야말로 박물관이 수행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서 회원국은 박물관이 특정분야의 컬렉션이나 기념물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가능한 전시회를 적절하게 조직하도록 장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공개행사나 관련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디지털 형태 모두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소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 역시 박물관의 또 다른 주요한 기능으로 박물관은 교육기관들 특히 학교와 협력하여 지식과 교육적, 교육학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전승하여 정규 및 비정규 교유과 평생학습을 수행하되, 박물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컬렉션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산보존과 창의성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권고문은 현 사회의 박물관 관련 이슈를 세계화, 박물관과 경제 및 삶의 질, 사회적 역할, 박물관과 정보통신기술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박물관이 세계화시대에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사회에서는 경제 주체로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이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및 결속의 요소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이 박물관에게는 또 다른 기회임을 인식하고 회원국 정부가 박물관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위기와 기회

지난 5월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11) 2015년 권고문의 박물관의 정의(원문): "A museum is a non-profit making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of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for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njoymen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evidence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의 13%가 다시 문을 열지 못할수 있다고 발표했다.[12] 즉 전 세계 박물관의 여덟 곳 가운데 한곳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영원히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13]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임시라도 문을 닫은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8만5천 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의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관람객들과 계속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인류의 절반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고립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접근권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발언은 향후 박물관이 전지구적 팬데믹사태를 통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새로운 도전을 앞당기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9월 3일 유튜브로 진행한 경주 황남동 고분 장신구 발굴 설명회는 놀랍게도 2,800여명이 동시에 시청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언론사 취재진의 현장 방문이 제한되어 어쩔 수 없이 택한 실시간 중계에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진 것이다.[14] 과거 신문광고에 의존하던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인터넷판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첨단 기술을 통해 박물관은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조기에 열어준 것이다. 이제 박물관이 보전과 연구, 오프라인 전시 등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중친화적인 기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며

유네스코 운영하는 다양한 유산 인증제도는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일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에도 소중한 자산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의미이다. 특히 세계유산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호과정에 동참시키고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국가주의가 팽배하는 지금 오히려 세계유산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습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세계유산의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갖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유산이 지니고 있는 완전성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12) 연합뉴스, 유네스코 "전 세계 박물관 13% 다시 문 못 열수도"(2020.5.18.)
13) 뉴시스, 유엔 "코로나19로 전세계 박물관 8곳중 1곳 없어질 것"(2020.5.20.)
14) 서울신문, 코로나 위기가 앞당긴 기회와 도전(2020. 9. 7)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세계유산교육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재난 상황과 위기에 있어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유산 교육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유네스코 박물관 권고문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박물관은 과거 유물을 보관하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의 지적 교류와 창의성을 자극함으로써, 교육,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문화의 보존과 창조의 산실로서의 박물관이 가지는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그 활동을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인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문화재청, 2005,『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문화재청
이선경, 2006『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유산교육의 만남』, 청주교육대학교
김귀배, 2006,『유네스코 문화유산사업에서 본 문화유산교육의 의미와 가치』, 문화유산 교육세미나,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7,『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문화재청
최재헌, 2015,『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의의』, 대한건축학회
오영찬, 2017,『세계문화유산교육의 새로운 시도』, 미술사학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APCEIU

UNESCO, 2002,『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UNESCO
UNESCO, 2015,『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useums and Collections, their Diversity and their Role in Society』 UNESCO.
UNESCO, 2016, Concept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World Heritage Sites and Museums", UNESCO

웹싸이트

문화재청 웹싸이트 http://www.cha.go.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싸이트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웹싸이트 http://www.unesco.org/

신문, 인터넷뉴스

연합뉴스, 유네스코 "전 세계 박물관 13% 다시 문 못 열수도"(2020.5.18.)
뉴시스, 유엔 "코로나19로 전세계 박물관 8곳중 1곳 없어질 것"(2020.5.20.)
서울신문, 코로나 위기가 앞당긴 기회와 도전(2020. 9. 7)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❶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백진주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❶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백진주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

Ⅰ. 서론

Ⅱ. 지역박물관의 역할과 오늘날의 기능

Ⅲ. 지역유산 수원화성(水原華城)에 대한 고찰

Ⅳ. 수원화성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초록

오늘날 박물관들은 점차 유물을 수집 · 보존 · 연구 · 전시하는 기능 이외에 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직접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이 늘어나면서 지방 박물관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박물관과 지역 주민간의 일체성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교육은 이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은 박물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특성을 살린 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원지역의 특성을 살려 건립된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을 중심 배경으로 정조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원화성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및 목적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 체계를 서술하였다.

또한 지역박물관의 오늘날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유산인 수원화성의 역사적 배경과 건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문화기관을 통해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며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결론으로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을 아울러 지역 모두를 박물관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유산 보전 및 지역유산 활성화 방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원의 지역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하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 학습공간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주민 및 대중에게 더욱 문화 교육 기관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공공기관으로 지역문화에 선도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어디를 가든 그 나라, 그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 특징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자원 ·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더구나 '문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라와 나라'는 차치하고라도 그 안의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조차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들이 그 만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각자 풍요롭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에 대한 바램'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휴식과 놀이도 있으면서 문화적 소양까지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었으며, 이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오감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제 지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도록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박물관들을 설립하고 문화 시설들을 확장, 보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그 지역의 고유 향토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행사와 전시 및 체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직접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기능이 늘어나면서 지방 박물관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박물관과 지역 주민간의 일체성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이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지역박물관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쉬운 이해와 관심 증대에 따른 요구를 단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박물관의 교육기능과 역할이 박물관 운영 전반에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박물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휴식과 즐거움, 학습이 공존하여 기능적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놀이 마당으로써의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을 중심 배경으로 정조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원화성의 보조적 매개체 역할로써 현지 지역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문화를 재창조해 나가는데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교류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2009년에 건립된 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와 연계한 박물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개선 방향과 질적으로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수원화성박물관이 지역의 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됨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최상의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지역박물관의 역할과 오늘날의 기능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풍토나 사회가 만들어낸 독자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사회 안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박물관은 그 지역의 특색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소장품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증거로 보여준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문화의 중심체로서, 잠재적인 관람객과 지역주민에게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1)]

오늘날 지역박물관은 이 밖에도 지역 경제를 회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경제적 역할 활동을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박물관은 공공의 문화기관으로 발전해오면서 과거에 비해 문화교육 측면에서 비중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박물관 홍보 · 운영 및 발전에도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박물관은 사회 · 문화적 역할에서 더 나아가 아이디어나 콘텐츠로서 새로운 문화로 경제적인 면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갖기도 한다.

지역박물관은 현대에 들어와 지역주민이 사회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기관이다. 즉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 볼 때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사회학습기관으로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휴식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맞게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나아가 관광자원의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문화를 활용한 관광사업은 콘텐츠로서의 중추적이고 새로운 경제역할로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을 통한 관광의 수익은 지역의 자산이며, 관광외적으로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박물관은 전시를 통한 활동 외 지역성을 살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

Ⅲ. 지역유산 수원화성(水原華城)에 대한 고찰

현재 수원지역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조선 후기 건축된 수원화성의 건설 과정에서 백성들이 구 수원읍치(현재 융건릉 일대)에서 정조의 국가정책으로 오늘날의 화성 성곽 내외로 집단 이주하면서 도시 건설이 이루어졌다. 19세기 이후 도시 기능이 확장되고 경부선이 수원을 주요한 역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수원 지역유산은 수원화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수원 중심부에 성곽이 5.74Km 둘러져 있으며, 다양한 시설물이 건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원지역 도심부내에 수원화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성곽의 손실이 컸으나, 1975년부터 1979년까

1)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35쪽.

지 1차 복원공사를 추진하였고, 1989년부터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과 지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수원화성의 특성과 배경

수원화성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훌륭한 건축물로써, 그 당시의 사회 · 경제 · 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정부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행해진 공사였다. 또한 수원화성은 근대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손실된 부분을 오랜 시간동안의 복원으로 유네스코의 등재와 더불어 현재에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더욱더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이 생겨났으며 보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수원화성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많은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으나 수원화성 성곽 건축물의 의미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연히 수원화성 성곽도 뛰어난 문화재이지만 문화재로 지정, 유네스코로 등재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적 요소는 그 시대를 앞서는 사상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도시계획, 자연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의 건축계획, 수원의 곳곳에 심은 식재, 수원천의 실용적인 물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2)]

Ⅳ.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활성화 방안

1. 수원화성박물관의 건립 배경[3)]

수원화성박물관의 건립 취지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위상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따른 수원지역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이 가지는 축성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화성 축성 과정에서 나타난 수원의 도시계획, 이 과정에서 구현된 당대 최고의 기술력, 실학사상, 민본적인 이념을 자연스레 드러내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또한 실재하는 수원화성과 상호보완적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수원화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평생학습의 사회교육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하였다.

수원시는 환경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고 공공의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영역을

2) 김준혁 외, 2010, 『우리가 몰랐던 정조, 화성이야기』, 수원화성박물관, 228-235쪽.

3) 수원시박물관사업소, 2009, 『수원화성박물관 건설지』58-61쪽.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박물관 주변에 생태공원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건립과정 및 박물관 운영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이로 인해 박물관은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며, 나아가 지역정체성을 찾고 지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박물관의 사회교육(수원화성박물관대학, 인문학 특강, 어린이체험교육, 성인교육강좌, 학술대회, 세미나 등)과 문화 행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자족성, 쾌적성이 높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교육프로그램 현황[4)]

가. 성인대상 프로그램

수원화성박물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지역정체성을 함께 찾아나가고자 다양한 이론 프로그램과 전통 실기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역사문화와 관련된 전공 분야별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하는 수원화성박물관대학이 대표적이다.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21기를 운영하였으며, 매 기수마다 다양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어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이 시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진솔한 얘기를 듣는 인문학 특강이 있다. 야외 프로그램으로는 강사의 해설과 함께 직접 수원화성을 코스로 나누어 답사하는 프로그램은 수원화성박물관에서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전통 실기 강좌는 전통 공예를 다루는 명인을 초청하여 이론을 익히고 실제 실습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보는 강좌이다. 실기 강좌가 종료되면 수강생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개별 작품집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전통 실기강좌는 수강생의 문화적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2009년 개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한 성인강좌 주제 및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4) 2009-2020, 수원화성박물관 내부 교육 자료를 통한 정리.

〈표 1〉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강좌명</th><th>횟수</th><th>운영내용</th></tr>
<tr><td rowspan="4">성인
강좌</td><td rowspan="3">이론
강좌</td><td>• 제1~21기 수원화성박물관대학</td><td>각 기수당
8~10회</td><td>• 수원화성의 역사 문화, 정조시대 관련 (이론 6회 및 답사 2회 형식으로 진행)</td></tr>
<tr><td>• 인문학 특강</td><td>각 1회</td><td>• 이 시대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를 초청하여 듣는 강의</td></tr>
<tr><td>• 수원화성 현장에서 읽는 『화성성역의궤』 답사</td><td>각
8~12회</td><td>•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한 수원화성 현장 답사</td></tr>
<tr><td>실기
강좌</td><td>• 성인 전통 실기강좌(강좌명)
① 전통 매듭 배우기
② 문화재 사진 강좌*
③ 전통 단청 강좌*
④ 전통의 빛깔, 칠보공예*
⑤ 전통 은 장신구 공예*
⑥ 전통 닥종이 공예*
⑦ 우리 전통 자수 공예
⑧ 우리 전통 목공예*
⑨ 전통 목판화*
⑩ 다도란 무엇인가</td><td>각 강좌당 약
12~24회
운영</td><td>• 전통 공예 강좌 관련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작품 완성 과정

* 표시는 강좌 수료 후 박물관에서 수료생 작품 전시회 개최</td></tr>
</table>

수원화성박물관대학 내부 이론 강의

수원화성 현장에서 읽는『화성성역의궤』 답사

전통의 빛깔, 칠보공예 강좌

수료생 작품 전시회 개최

[그림 1]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나. 어린이 및 가족대상 프로그램

1) 어린이체험실

어린이체험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박물관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 박물관 소장유물을 쉽게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코너다. 체험내용으로는 혜경궁 가마의 포토존, 장안문 성벽쌓기, 봉돈 체험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단위 및 어린이 단체 체험객이 많으며 매년 약 9만 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표 2〉 어린이체험실 운영 현황

순서	체험명	체험내용
1	혜경궁 가마의 포토존	혜경궁이 타고 다니던 가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보는 코너
2	정조, 혜경궁 전통 옷입기	정조, 혜경궁의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코너
3	옛날 도량형 재기	옛날 사람들이 무게, 길이 등을 재던 방법을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
4	장안문 성곽쌓기	장안문 축소 모형을 통해 성곽구조를 익히고 모형벽돌을 통해 성벽을 쌓아보는 코너
5	봉돈체험	봉돈의 신호체계를 알아보는 코너
6	정조임금님의 편지쓰기	세손시절 정조가 썼던 편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 및 가족에게 안부편지를 쓰는 코너
7	수원화성 프로타주	화성행궁 편액 및 세계유산 인증서를 프로타주 해보는 코너
8	유물 퍼즐 맞추기	수원화성능행차, 채제공 초상화의 퍼즐을 맞추어보는 코너

어린이체험실 내부

어린이체험실 자원봉사자의 해설

새해맞이 목판화 체험

수원화성, 유물 관련 체험 코너

[그림 2] 어린이체험실 운영 사례

2) 정기적 어린이 및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와 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시기별, 연령별, 학습 성격에 따라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 시부터 운영해 온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수원화성 축성 시 사용되었던 과학적인 축성 도구들을 교구로 제작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지리적으로 수원화성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인근에 화성행궁 및 화홍문 등 역사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이점을 활용한 야외 체험형 답사 프로그램도 대표적이다. 이 밖에 기획 전시 연계교육, 방학교육, 기관연계 교육, 단체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3〉 어린이 및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및 횟수	운영내용
어린이 및 가족	어린이 대상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	연중 1,3째주 수 (월 2회 운영)	동화책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한 체험활동
		함께 알아보는 박물관	연중 화~금 (주 5회 운영)	단체를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유물, 조선시대 문화를 주제로 이론 및 체험학습
		기획전시 연계교육	기획 전시 중	기획전시의 유물 소개 및 함께 전시실 관람
	가족 대상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	연중 매주 토 (주 3회 운영)	수원화성 축성 시 사용된 과학기구의 쓰임을 교구로 만들어 원리를 이해
		박물관 옆 역사문화 탐방	3~11월중 토 (월 2회 운영)	수원화성 역사와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형 답사
		알기 쉬운 박물관 유물이야기	매월 첫째주 토 (월 1회 운영)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유물 및 수원화성 역사문화를 동영상 학습 및 체험활동
		방학프로그램	방학 시 6회 운영	박물관 소장유물을 통해 조선시대문화, 복식, 왕실 행사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 및 체험학습
		신나는 수원 테마박물관 기행	8월중 (4~8회 운영)	수원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기관을 방문하여 유물 및 전시 관람 후 체험활동
		어린이날 기념 정조대왕 효孝 체험행사	5.5일 (1회)	어린이 날을 기념하여 수원화성 역사 문화, 정조 관련한 체험행사

※ 최근 5년간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리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거중기 조립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녹로 조립

박물관 옆 역사문화 탐방-수원천 코스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

기획전시 연계교육

개관 10주년 기념 틈새전시-교육교구전

어린이날 기념-정조대왕 효孝 체험행사

[그림 3]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3. 지역유산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점

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의 훼손된 부분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복원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수원화성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기관으로 화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화성행궁의 관람을 개방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건립하였고 이 기관은 모두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지역 내 · 외부에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화성행궁의 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체험교육과 공연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으며, 2009년 4월 수원화성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지역의 문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외부 찾아가는 박물관, 상설 음악한마당, 박물관 마실길, 수원화성의 해설 등 의 노력으로 박물관은 이제 수원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외부 관광객들은 수원 내로 유입 · 수원화성을 관광하며, 주변의 문화적 공간을 브로슈어의 안내나 인포메이션을 통해 박물관과 행궁 및 주변성곽을 찾는다. 이를 위해 박물관들과 행궁에서는 주말 야외공연을 통해 더욱 기관을 알리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관람 배려를 위해 외국어가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해를 더욱 돕고 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지역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은 여러 여건 상 일회성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지역유산인 수원화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도 있는 반면에 타 기관과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관에서는 일회성 프로그램들이기에 박물관 및 행궁에서 활동을 한 참가자는 다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 기획을 지역유산과 관련된 내용 속에 구체적이고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향

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특성화 시켜야 한다. 즉 어디에서나 체험 및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닌 수원화성에서만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원화성의 역사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특화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일회성의 프로그램,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관람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프로그램에 유입시킬 수 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전문 운영자가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시 단순 체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에 의한 전문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이로 인해 폭넓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역사적 이해와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전문 운영자가 필요하다.

박물관 교육은 교육 대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프로그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박물관 나름대로의 교육 목적과 본질을 파악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하게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원화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박물관 및 행궁에서는 더욱 보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성 있고 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됨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홍보 등의 서비스를 구축 확대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식 및 내용을 점검하고, 코로나 19(COVID-19)이후의 새로운 박물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숙제와 향후 운영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

4.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원은 수원화성을 유네스코에 등록시킨 이후 직접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수원화성관련 문화기관을 건립하였다. 그 중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화성의 야외성곽 전시와 더불어 박물관 내부의 유물과 전시를 통해 보다 역사적 내용과 의미 정보 전달을 돕고 있다. 또한 성인·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박물관 성격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박물관을 연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키는데 인식을 더하고, 더욱 활성화 시키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프로그램의 기획되는 아이디어는 수장고·전시실의 유물을 근거로 유물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수원화성박물관 만의 유물을 통해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수원화성 건축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야 말로 수원화성의 가치와 창조성에 대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물의 성격을 살린 프로그램과 외부 생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수원화성박물관만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특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유물의 성격을 살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지역박물관이 지역변화의 특성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 소장품의 연구·보존·전시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의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힘쓰고 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하려는 목적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정보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물로서 박물관 유물의 선정과 선정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나 자연 환경과 연계된 주제 등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살려 수원화성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물을 가지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적 가치와 효과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박물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원화성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외 일반 이용자 및 외부 관람객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인상과 박물관의 재방문의 계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보다 쉽고 빨리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라면 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소통이 되지 않으며,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만의 특색 있는 유물의 성격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은 지역 유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써, 전시 관람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수원지역의 특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원화성박물관의 대표 유물의 성격을 살린 프로그램을 사례로 수원화성을 지을 때 자료로 남아있는 『화성성역의궤』를 활용한 수업, 수원화성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채제공 초상화를 바탕으로 수원화성의 인물에 관한 교육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대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체험형식의 이론과 실제 수업, 어린이들에게는 유물의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체험 수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물의 성격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은 수원지역문화의 산실로서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의 역사적 우수성과 주체성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확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며, 지역유물을 통해 현재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비대면 사회에 진입하면서 각 문화기관에서는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홍보 등의 서비스를 구축 확대하고 기존의 운영방식과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교육 서비스가 불가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수원시 계정의 SNS(YouTube)에 홍보한 사례가 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 및 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 소개와 함께 관련한 박물관 교육 영상물이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화 소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화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만 하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2) 외부 생태적 환경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수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정조의 화성, 융릉과 건릉, 용주사 등의 역사 문화유산과 선진 농업도시로서의 이미지이다.[5] 수원지역은 산과 호수, 냇가, 고적과 문화· 예술이 조화를 이룬 고장으로서 유서 깊은 역사문화 유적과 관광지, 박물관, 공원 등이 근처에 산재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수원화성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많은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으나 성곽 건축물의 의미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연히 수원화성 성곽도 뛰어난 문화이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요소는 그 시대를 앞서는 사상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생각하고 배려했던 도시계획, 자연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의 건축 계획, 수원의 곳곳에 심은 식재, 수원천의 실용적인 물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배경은 수원이 성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념과 정책으로 조선시대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정조가 내세웠던 실천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수원화성박물관 내의 전시실에 소개가 되어 있으나 수원화성 건설의 배경적 의미로 스쳐 지나칠 수 있는 요소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수원화성을 짓게 된 과학기계, 건축 시설물 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축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수원화성박물관 생태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위치적으로 박물관 건물의 바로 오른편에는 수원천이 흐르고, 방화수류정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박물관의 전시와 함께 의미적 측면에서 이해와 정보가 쉽게 이해될 것이며, 수원화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좋은 경험과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상황 속에 다시 회생시키는 목적으로 수원지역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5) 최홍규, 2003,「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행궁의 역사적 의미」, 경기대학교 부설 화성학연구소, 25쪽.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지역의 생태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배경적 의미로 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 지역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1) 박물관과 학교교육의 연계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박물관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즉 박물관은 학교와 다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박물관 환경과 유물은 교육대상자를 자극하게 되는데, 박물관의 교육환경은 실제 유물과의 연계성을 띠기 때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흥미롭고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를 촉진시킨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연령별, 관란 집단별로 구분하면 학교 단체 관람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박물관 방문과 관람의 학습적 효과를 위해 박물관 교육담당부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은 학교와 연계되어야 하며, 그 연계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6)]

박물관은 학교와 연계되어 교육장소로 활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접하던 유물들을 실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유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는 감성을 키워주어 학생들이 문화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박물관을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원지역 대부분의 학생들 및 외부 학교단체 학생들은 단체관람을 통해 박물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은 없는 상태이다.

제 8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수원지역의 소개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이라는 주제로 사회과 교과에 소개가 되고 있으며, 수원지역교과서에서는 '수원이 좋아요' 라는 주제로 수원지역 소개가 거의 대부분 지역유산에 대한 내용으로 수원화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수원화성과 관련된 학습적인 내용으로 수원화성의 현장, 박물관과 연계되어 학습하기에 충분한 장소로서 이용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과 학교연계 교육 시 박물관의 변화는 학교 · 지역과 기관의 전문성을 띄며 자원을 공유하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에서의 위상 확립과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박물관과 함께 목표를 지향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기회제공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6) 백령 외, 2009, 「박물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박물관, 110쪽.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 교육 현장인 박물관과 학교에서 행정이 연계되어야 하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최종적 수요자를 만나 상호작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의 운영은 물론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7)]

2) 수원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

박물관이 이용 관람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해야 존재하는 것과 같이 박물관과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한 활동이다.[8)] 박물관과 박물관의 연계활동 교육은 서로 기관에 있어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지역 내의 흩어져 있는 소규모 박물관 · 미술관들과 연계하여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이들을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9)]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과 관련한 유물들과 모형전시를 통해 수원화성 배경과 역사적 문화 이해를 돕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 수원화성을 소개한다. 그러나 수원은 화성을 건설하기 이전 수원의 역사의 기반에 두고 건설된 것이기에 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수원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박물관의 내부에서는 화성행궁의 모형과 함께 역사적 사실이 모형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사현장과 더불어 직접 화성행궁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인근 기관인 화성행궁과 수원박물관과 연계했을 때 특화된 내용과 교육방법으로 구성한다면 타 지역박물관에 있어서도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홍보할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화 된 수원화성과 관련된 기관들이 연계된다면 지역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공동개발하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수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심층적인 프로그램들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의 개발은 나아가 수원지역 외 타 지역의 순회전을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지역의 박물관에서도 수원화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또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활동과 더불어 각종 문화예술교육과 행사 활동, 기타 연구 활동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공유하거나 교류를 통해 수원화성의 문화 요지로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물론, 관람객 저변을 확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7) 백령 외, 앞의 책, 113쪽.
8) 김수미, 2008,「특수, 전문박물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89쪽.
9) 박용두, 2004,「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개발의 방향」,『농업기술회보』, 41권 제6호, 19쪽.

다. 프로그램 홍보

1) 지역주민을 활용한 홍보 활동

지역사회에 있어 지역주민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지역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의견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 중 박물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및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의 활동을 활용하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지만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만이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 이용자들은 홍보물이나 정보에 대해 접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일반 이용자 혹은 자원봉사자의 모임이 따로 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모임의 결성을 통해 결속력 있는 박물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것은 박물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홍보에서 찾기 부족한 지역주민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활용도를 이용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뢰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 ·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지역문화를 다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에 관한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수집하고, 반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및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이용자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을 박물관에 전달해주고 박물관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반영하고 자신들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 경험, 지식을 활용해 박물관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박물관 수요층을 넓힐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 방법은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정보교육센터로서의 박물관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2) 마케팅 활용

박물관·미술관 마케팅은 관람객에게 잠재해 있는 문화적 욕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 체계적 이론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문화소비의 즐거움과 정보 창조의 유익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의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급하여 만족감을 극대화 시키는 총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10)]

박물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방문하는 목적이 정보습득, 여가선용,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시감상, 관광코스,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권순성, 2007,「박물관 방문동기가 관람만족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1쪽.

이것은 박물관 마케팅의 전략에 중요한 요소이며, 계획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마케팅 중의 하나는 박물관의 홈페이지 개설로 박물관 관련 소식 및 정보 소개, 온라인 관람객의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방법이다.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이 실행하고 있고,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박물관 홈페이지의 접근'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박물관대학 강좌를 동영상 강의 제공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의 사전 활동지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실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달에 1번 이상 박물관 홈페이지 접속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소식에 관한 문자나 소식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면에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보를 접함에 있어서 정보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정된 대상에게만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나누어 그 대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흥미를 자극하며, 교육적인 학습의 효과를 놓치지 않으면서 많은 대중을 박물관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별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화성박물관의 마케팅은 무엇보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박물관의 운영 상황, 이용객의 활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과 매체가 필요하다.

나아가 수원 지역의 문화기관 및 대중공간과 연계된 홍보 등으로 잠재된 이용자의 인지도 및 심리적인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Ⅴ. 결론

오늘날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는 역할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전문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대중의 평생학습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발적이고 흥미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여가 선용의 장소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지식 습득은 이전에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시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과 더불어 관점을 달리 하는 것에 있다. 이에 박물관 교육활동은 살아있는 역사와 인류의 지식을 엿볼 수 있고, 과거의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 눈에 경험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원화성의 역사·자연·환경·예술 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주는데 역할을 하고 수원화성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교육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박물관은 박물관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원화성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수원화성박물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롭게 시도하고는 있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이나 창의성, 연속성 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에게 대중적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원화성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화성박물관만의 특색 있는 유물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원화성의 건축적인 측면 외의 중요하게 작용했던 배경적인 요소로 환경적인 생태를 살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수원화성과 관련한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역 전체가 유기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수원화성을 연관지어 수원화성박물관에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수원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다섯째, 수원화성박물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전시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위의 프로그램 개발은 수원화성박물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리고, 문화적 공공성을 살린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화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속에 수원화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화 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역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타 박물관에서도 수원화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수원화성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수원화성박물관만의 특색 있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선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은 더욱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외부 관람객에게 홍보하며, 연계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관람자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산인 수원화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생태자원으로서 수원천, 수원의 자연환경, 생태 탐방로 등의 배경을 한 지역적 특성과 수원화성의 건축적 배경 및 역사에 대해 실용적이고 쉬운 지식과 정보를 지역주민 및 대중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을 아울러 지역 모두를 박물관으로 변화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성장가능성을 제고, 지역유산 보전 및 지역유산 활성화 방안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원의 지역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하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학습공간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주민 및 대중에게 더욱 문화교육기관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공공기관으로 지역문화에 선도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준혁 외, 2010,『우리가 몰랐던 정조, 화성이야기』, 수원화성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2008,『해외 미술관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2010,『어린이와 박물관연구』
문화재청, 2007,『문화유산교육, 이렇게 해봐요』
백령, 2005,『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수원화성박물관, 2009-2011 기획전시도록
수원화성박물관, 2011,『알기쉬운 화성이야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01,『水原市史 · 上,中,下』
수원박물관, 2011,『2009-2010 수원박물관 어린이 교육백서』
세계박물관협회, 2001,『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궁리
UNESCO, 2001,『도시발전과 세계유산 성곽도시 지형의 보존』
이보아, 2009,『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존포크 · 린 디어킹, 2007,『박물관교육의 기본』, 미진사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0,『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한국예술경영학회, 2001. 1집,『예술경영연구』
강경환, 2010,「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방안연구」, 목원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논문
곽권희, 2003,「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명주, 2009,「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의 가치보존 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주영, 2003,「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기능의 박물관 공간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논문
김지원, 2007,「지역박물관의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김근숙, 2008,「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동훈, 2003,「수원 화성경내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수미, 2008,「특수, 전문박물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송현정, 2010,「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안광선, 2011,「박물관교육 평가기준 개발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윤희, 2004,「지역문화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정현정, 2010,「전라북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ICOMOS-KOREA, 2004,「세계유산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
Kazuoki Ohara. 1998, Vol. 25,「The Image of Ecomuseum in Japan」
국립민속박물관, 2010,「제23회 박물관 학술대회-뮤지엄과 지역사회」
최효승, 2005. 6월호,「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계획과정과 지역 통째로 박물관 개념의 적용실험」, 대한건축학회
최효준, 2001,「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제1집.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❷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교육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허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❷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교육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허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UNESCO는 2007년 7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제주도의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가치를 가진 유산에 부여되는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를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등재 과정도 무려 7년이나 걸렸다. 세계자연유산 제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유네스코는 아직까지도 제주의 100만 서명 운동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왜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선택을 했을까? 세계유산 등재 기준 7번'빼어난 경관적 가치'와 등재 기준 8번 '독특한 지질학적 환경'이 그 이유다. 제주는 지난 2012년에 재평가에 통과하였고, 다음 재평가를 위해 정기보고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면적의 약 10% 정도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자연유산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주도 화산섬의 상징인 한라산은 1800여종의 식물과 4,000여종이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40여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이 특징이다. 또한 1,950m의 높이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사시사철 다양한 경관을 자랑한다.

성산일출봉은 약 5천 년 전 수성화산으로 탄생하였으며, '수성화산 연구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퇴적 특성을 보여 수중 분출화산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바다위로 솟아오른, 요새와도 같은 형상의 성산일출봉은 경관적으로도 무척 뛰어나 한국 비경 1위로 CNN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성산일출봉은 해맞이 대표 명소로 매해 12월31일 성산일출축제가 개최되며 많은 사람들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방문한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약 1만 년 전 거문오름에서부터 분출한 용암이 월정리 해안가까지 약 13km 흘러 형성된 용암동굴 무리이다. 모체인 거문오름은 용암협곡, 수직동굴 등 다양한 식생으로 '살아있는 화산 박물관'이며 생태관광 대표명소로 환경부 · 문체부 주관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선정되기도 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동굴에는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있으며, 동굴마다 독특한 용암동굴의 특징(만장굴 : 7.6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용암석주, 당처물 동굴 : 종유석, 종유관, 동굴 진주 등 다양한 탄산염 2차 생성물)이 있어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IUCN은 등재 당시 제주도에 다섯 가지 권고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핵심지역 매입이며, 제주도는 약 500억 원을 들여 99%이상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했다.

두 번째는 방문객과 상업 활동의 효율적 관리인데, 제주도는 이를 위해 거문오름 탐방객을 제한하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거문오름을 탐방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하루 450명만 탐방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수행한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유도하고,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 올 2월부터 한라산에도 탐방예약제(성판악1,000명, 관음사500명)가 시범 도입이 됐으며, 2019년 7월1일부터 탐방객수를 제한하기 위해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입장료도 두 배 가량 인상했다. 세계유산지역에서의 상업 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상가를 매입하고 홍보관을 건립하였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농업활동이 동굴계의 생태계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상의 농업활동을 규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돌담 등을 이용해 경계표시를 했으며, 친환경 농사도 시행하고 있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제주 화산 지형의 관리와 생물다양성 가치 관리로 지질 및 식물 전문가들이 세계자연유산지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도 구축했다.

마지막 권고사항은 제주도 내 다른 중요한 용암동굴계나 화산적 특징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세계자연유산 확대타당성 연구를 시행하고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 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가 결정되었으며, 세계유산 구역이 변경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도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식생유지, 나무예방주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꾸준히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에 다양한 탐방기반시설을 마련했으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대표적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IUCN의 권고로 건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가치 전달, 연구 및 모니터링, 홍보,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줄리아마르통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엔리케 라만 총괄국장은 지난 2012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방문하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제주 섬의 탄생부터 현재의 모습, 자연과 생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특히 제주의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극찬을 했다.

‘세계유산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에 부여되는 최고의 영예’로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 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의 세계자연유산을 이끌어갈 맞춤형 창의인재인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7명, 2019년 54명, 2020년 60명을 양성하였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일출봉 4개 지역으로 나눠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이론 강의, 현장답사 및 실습, 자료조사 및 토론, 현장시연 등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세계자연유산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양성된 어린이해설사들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 성산일출축제 등 세계자연유산 관련 행사에서 직접 탐방객들에게 해설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 활동을 하는 어린이해설사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한다.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어린이해설사들의 해설은 탐방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만장굴에서 어린이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 서비스 제공에도 목적이 있으며, 어린이해설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제주 화산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올해 개최되고 있는 세계유산축전 행사에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어린이 해설사들이 참여해 만장굴을 개척했던‘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이야기를 연극으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제주 도내 유네스코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학교란 학교 교육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고자 유네스코가 1953년에 시작한 제도로 전 세계에 약 10,000여개의 학교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615개 학교가 활동 중이며 도내 23개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의 제주자연환경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전문 강사의 학교 교육 및 생태 체험프로그램, 교사워크숍 및 학생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배울 뿐만 아니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줌으로써 교육내용의 습득을 통하여 제주자연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한 해에 300여명씩 총 2,137명의 학생들이 유네스코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등 세계자연유산과 예술 활동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전국의 초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화 공모전은 주제에 맞는 1~8컷 분량의 만화를 8절 자유용지 한 장에 표현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주 캐릭터 공모전은 성인만 응모할 수 있으며, 기본형 1컷 및 응용형 2~3컷으로 캐릭터로 표현해 접수를 받고 있다. 수상한 작품들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매년 전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념품으로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계자연유산 전국 초·중·고 그림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튜브 시대에 맞춰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도 지난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도내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직접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제주를 알리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개 모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총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현장체험, 생태놀이, 오름 모형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법 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콘텐츠 발굴 작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갖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구축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작품들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 중 3명은 유튜브 콘텐츠 홍보 모델로도 활동을 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라산 특별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과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센터 2개 프로그램으로 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자연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그린 리더 양성프로그램으로 동·식물 수업과 환경보전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세터는 산악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주산악인의 도전정신을 본받아 청소년의 창의성과 호연지기 정신 함양을 기르기 위해 운영되며, 루트세터 자격을 가진 산악해설사와 인공암벽 홀드다자인, 실리콘 틀 제작, 직접 만든 홀드로 등반루트를 세팅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대상은 14세부터 18세 청소년이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청소년자원봉사 10시간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 한라산 체험학교, 학교로 직접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립공원 등도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학교 차원에서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중학교 교과서에 세계자연유산 교육 내용 수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 13종의 교과서에 세계자연유산 제주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 제주 세계자연유산 이해와 체험을 위한 전국 교사 직무연수가

대표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 특강과 유산지구 현장 체험 활동, 교육 현장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함께 읽는 화산섬 제주, 세계자연유산 팝업북,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 해설 매뉴얼 책자 등 청소년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 27조에는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유산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연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삶에 대해 말로 생생하게 해설하고, 그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전활동에도 힘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마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마을은 세계자연유산이 속한 7개 마을로 선흘1리, 선흘2리, 덕천리, 성산리, 행원리, 월정리, 김녕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마인드를 확산 시키고자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 해설사 양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부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0명 가까운 해설사를 양성하고 한 해에 100여명이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등에서 해설 활동을 하고 있다.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년마다 해설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화산활동 특성과 제주도 형성과정 등 전문 교육,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현장 해설 기법, 탐방객 안전관리 능력, 서비스 마인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자연유산 해설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해설사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해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흘 2리 학생, 어르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1년 간 20여 회 이상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등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출판, 편집, 전시 기획까지 함께 하는 작가 창작 프로그램으로 세계자연유산과 그림책을 매개로 마을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머물고 싶은 세계자연유산마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해 연말에는 1년간 그림책 수업의 결과물인 선흘2리 마을창작 그림책 展 북 콘서트와 전시도 진행됐으며, 출판까지 계획되어 있다. 지난해 '그림책 작가와 함께 내 인생의 인생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90세 어르신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글이고 그림이고 배우지 못해 색연필도 처음 잡아 본다"며 "그림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은 세계자연유산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세계자연유산마을 김녕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마을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을 '꿈꾸는 청춘카메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연극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관련 행사나 세계자연유산마을 문화제 등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 프로그램은 지난해 선흘2리, 올해 김녕리에 이어 7개 세계자연유산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세계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어린이 대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산지구 방문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기반 마련에도 목적이 있으며, 재활용품 활용 예술품 만들기, Flea Market 등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 및 제주 보전의식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년 간 300여명의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전략 공유를 위해 해외 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체결된 지역은 미국 하와이 화산국립공원(2008), 중국 태산(2009),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2010),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지(2010), 호주 태즈매니아주 국립생태공원(2017), 영국 북아일랜드 자이언츠코즈웨이(2017)이다. 자매결연 지역과는 상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각 국 행사에도 참석하기도 했으며,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지 비지터센터에는 세계자연유산 제주 홍보관을 마련하는등 자매결연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과는 화산을 주제로 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세계자연유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다음 해인 2008년부터 매년 세계자연유산 생태체험 프로그램인 거문오름국제트레킹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출행사인 성산일출봉 새해맞이 프로그램(성산일출제)도 매해 진행하고 있다. 한라산에서는 타겟별(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로 특화된 한라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CT를 활용해 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가상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시부터 4D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VR 체험존을 설치해 비개방 동굴에 대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AR 콘텐츠를 제작해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세계자연유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만장굴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세계유산축전 기간 동안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고품격의 세계자연유산 가치 확산 및 향유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기억의 날, 세계자연유산 특별 탐험대, 세계자연유산 숨길 순례단, 가치 나눔 공감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자연유산마을주민,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세계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하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왜 세계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아껴야 하는지 느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구간에 대한 특별 탐험 프로그램은 심사를 거쳐 소수 인원만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특별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스스로 세계자연유산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세계자연유산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한 예로 만장굴 전 구간 특별탐험대가 있다. 전국에서 단 여섯 명을 선발해 만장굴 전 구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2박3일간 진행했는데, 2박3일 동안 세계자연유산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가치에 탄성을 자아냈으며, 세계자연유산을 널리 알리고 지키는 세계자연유산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갔다.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독일 IMEX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독일 북페어 홍보 부스 운영, 해외 관광 박람회 참여 홍보 부스 운영, 해외 순회사진전 개최,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홍보 활동 진행 등 국제행사에 참여해 제주를 홍보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제주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00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며 해외 홍보 확산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세계자연유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포터즈들은 온라인상에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자연유산 청정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쉐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에 참여해 해외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구글 스트리트뷰 활용 홍보,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교육 전망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미래의 비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건립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제공 및 통합관리이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외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대 국제보호지역이다. 지난 해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는 안건이 최종 승인되었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4대 국제보호 지역을 연구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정책결정자·주민 등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유네스코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운영되면,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이며, 국제보호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계자연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화 교육,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도민 교육 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다. 올해 개발 중인 세계자연유산 VR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도내 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세계자연유산 VR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도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V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ICT 기술로 세계자연유산을 좀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네 번째는 세계자연유산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이다. 코로나 등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화상기술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세계자연유산 원격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한 뜻으로 이루어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올해로 등재 13주년을 맞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10년간의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 계획 수립,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을 통해 다시금 보물섬 제주의 자연자산 보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브랜드로서의 위상 다지기에 나서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계자연유산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을 위한 교육적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교육 현황과 전망

: 세계유산의 가치(OUV) 공감세대 양성을 중심으로

강도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학예연구사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교육 현황과 전망
: 세계유산의 가치(OUV) 공감세대 양성을 중심으로

강도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학예연구사

Ⅰ. 들어가는 말

2019년에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지는 14곳이 되었다.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등재되는 순간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는데, 등재하기까지의 오랜 준비과정에서 많은 단체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자국민 소유(national)의 관점을 넘어 세계인에게도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적절히 구조화 한 설득의 자료(등재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1] 게다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에는 '인류 공동의 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과제를 다시금 안게 되는 셈이다.

세계유산을 잘 관리하여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과업을 달성하는 일에는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감세대'를 확충해 가는 교육활동[2]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세계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

1)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한산성, 어떻게 세계유산이 되었나』(2014)를 참조.

2) 허권은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한 문화재 일반교육과 세계유산교육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콘텐츠에 맞는 세계유산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허권. 2012.「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의 가치」,『국제이해교육연구』7-1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3) 유네스코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광에 의한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변화 등의 피해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증가하자, 1994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라는 정보가 대중에 알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등재유산 자체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혹은 교육 분야에서 각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유산을 소재로 활용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이해가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세계유산을 소재로 활용한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화하는 발전적 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근 교육 관련 환경에서는 '세계유산에 대한(about) 교육'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지식 향상을 꾀하고, '세계유산을 위한(for) 교육'으로 정의적 영역에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세계유산을 통한(through) 교육'으로 글로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등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4] 또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역사과나 사회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과목으로의 확대, 교수방법의 다변화와 교육대상의 다양화 등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5]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세대 양성과 관련하여 남한산성에서 추진해 온 참여대상자별(전문가집단, 성인, 초·중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건립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 지향해야 할 박물관교육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등재 이전의 남한산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현황

1. 남한산성 학술 연구 및 강좌 아카데미 운영

남한산성은 201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한 것은 2009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출범하면서부터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보통 문화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업은 기본적인 사실정보의 제공과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 사업 부분인데, 등재되기까지 남한산성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학술 활동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형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9년부터 남한산성의 탁월한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국제 및 국내 학술심포지엄을 꾸준히 개최한 것을 주목하고 싶다. 가치 공유세대의 육성을

세계유산교육(World Heritage Education Project)을 시작하였다.(김현욱, 김정민, 2014,「ESD 관점을 통한 초등학교 세계유산교육의 접근 가능성 탐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4-11호, 359쪽. 참조)

4) 中澤靜男, 田渕五十生, 2007,「ESDを視野に入れた世界遺産教育」,『奈良教育大學教育實踐總合センター研究紀要』16.
박재용, 2017,「세계유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열린충남』79, 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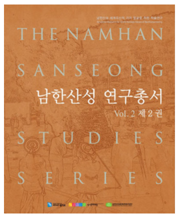
5) 한송이는 세계유산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목적으로서의 세계유산교육'과 '방법으로서의 세계유산교육'으로 분류하여 검토한 후, 세계유산교육이 사회과의 역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하는 것과 세계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가치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한송이, 2017,「세계유산교육의 연구 및 실천 동향과 최근 쟁점」,『기전문화연구』, 38(2)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술사업의 축적된 성과에서 도출한 자료로 남한산성은 등재기준 2번[6]과 4번[7]을 충족시키며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심포지엄의 주제를 살펴보면 OUV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소재의 발굴과 기존 세계유산 등재지를 비교·분석하여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통한 무기발달과 축성술의 교류'를 보여주는 남한산성의 건축 구조적 특징과 '계획적으로 축조된 임시수도로서의 산성도시'라는 성격을 이끌어 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활동을 기초로 등재신청서, 보존관리계획, 도면, 사진, 고문헌 자료집, 홍보영상물 등의 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표 1〉 2009년~2014년 남한산성 국제 및 국내 학술심포지엄 개최 내역 및 학술 연구 성과

- 남한산성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 -			
회차	시기	주제	학술연구 성과(출간)
1	2009. 9.	한·중·일 성곽 비교연구	
2	2010. 6.	산성도시 남한산성 가치 조명	성곽발전사 등
3	2010. 9.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총서 1권
4	2011. 5.	남한산성의 무형유산적 가치	연구총서 2권
5	2011.10.	국제성곽발달사 및 비교연구	연구총서 3권
6	2012. 6.	국제성곽유산 비교연구 및 용어 정립	연구총서 4권/사료총서 1-2권
7	2013. 6.	남한산성 성곽용어 정립	연구총서 5권/사료총서 3-4권
8	2014. 7.	세계유산 우수 보존관리 연구	연구총서 6권/사료총서 5권



이와 함께, 학술활동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학술전문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반응을 살펴 볼 수 있는 시민강좌 '남한산성 아카데미'를 매년 운영하였다. 당시로서는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한 병자호란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김훈의 『남한산성』 소설이 발표(2007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8] 한국사와 남한산성에 대한

6) 등재기준 2번 "특정 기간이나 문화 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경관디자인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 증거"
- 남한산성은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
-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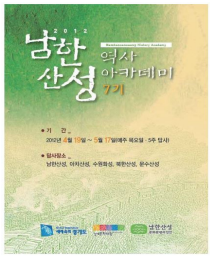
7) 등재기준 4번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술 또는 기술적인 총체로서의 탁월한 사례"
- 남한산성은 험한 지형을 활용,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단계를 잘 나타냄

8) 2009년 당시 지방 및 중앙 일간지에 40여 건 이상 노출되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노력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남한산성

역사 관련 강좌를 마련하여 일반인과 교원, 그리고 산성주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2〉 2009년~2014년 남한산성 아카데미 및 지역주민 강좌 운영 내역

– 남한산성 관련 강좌 프로그램 –				
회차	기간	남한산성 아카데미 내용	기간	지역주민 강좌
1	2009. 9.~10.	남한산성의 역사	2010. 11.~12.	역사적 고찰
2	2009.11.~12.	소설 밖의 남한산성과 인조	2011. 3. 24.	세계유산지 답사
3	2010. 4.~ 5.	인조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2011. 3. ~ 4.	교양영어
4	2010. 6.~ 7.	인조시대의 인물들		
5	2011. 4.~ 5.	세계유산과 남한산성		
6	2011. 9.~10.	세계유산 동향과 남한산성		
7	2012. 4.~ 5.	수도권 성곽 비교 연구	기간	교원대상 연수
8	2012. 9.~10.	남한산성행궁 비교 연구	2012. 7.~ 8.	역사문화 교원연수
9	2013. 5.~ 6.	문화유산을 보는 눈	2013. 8.	역사문화 교원연수
10	2013. 9.~10.	세계유산의 이해	2014. 8.	역사문화 교원연수



2. 남한산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최전선에서 전문가 집단의 연구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설득의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공감세대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혼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역사에 관심을 가진 성인이나 산성리 주민, 혹은 교원의 경우는 남한산성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자율적인 관심의 표출이 강한 집단이라는 가정 아래 평생교육 강좌 형태로 진행했다. 가족단위 탐방객과 초·중등 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답사형, 교육형 등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가치 공감 향유세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014년까지 운영해 온 남한산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종류와 사업수(부록 참조)가 많은 관계로 연도별로 주목할 만한 대표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았다.[9)]

세계문화유산 등재 상호 협력 체결(서울투데이, 2009.9.6.) 등]

〈표 3〉 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연도별 대표 사례

– 혼합형 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형 프로그램 –			
연도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대상
2009	등(燈)문화제 교육체험	등 만들기, 무예시범, 남한산성 답사	전체
2009	[행사]남한산성 문화마당	전통무예, 퓨전가야금 공연	공연
2010	문화재지도 만들기	남한산성 문화재지도 작성, 답사	어린이
2010	[행사]산성소락, 숲속음악회	클래식, 재즈, 국악 공연	공연
2011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성곽, 목조문화재 정화활동	대학생
2011	[행사]창작 판소리	남한산성역사로 만든 판소리	공연
2012	토요 전통문화학교	인사, 다례,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수업	어린이
2012	[행사]남한시재, 풍류음악회	전통무예 및 전통무용 공연	공연
2012	[전시]남한산성지킴이 포스터대회	남한산성을 알리는 포스터대회	학생
2013	청소년 세계유산지킴이	답사, 봉사활동, 문화재 홍보 활동	청소년
2013	[행사]산성여민락	광지원농악 및 줄타기 공연	공연
2014	산성오아시스	남한산성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대학생
2014	[전시]세계유산등재기원 남한산성그리기대회	등재기원을 담은 창의적 그리기 대회	학생

남한산성관광사업단이 출범한 2009년에 운영한 '등(燈)문화제 교육체험'은 3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일반 탐방객도 참여할 수 있는 남한산성 대표 행사로 출발하였다. 전통무예 18기 무예시범과 국악 공연 등을 통해 참여자가 느낄 수 있는 남한산성의 군사적이고, 조선시대 산성도시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남한산성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행사였다.

그리고 여러 NGO단체들(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과의 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참여 및 외국인 참여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 운영한 '문화재지도 만들기'와 '청소년 세계유산지킴이' 같은 사업은 참여자가 산성 내의

9) 남한산성에서 운영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는 공성현의 논문 참조 바람.(공성현, 2017,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특징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재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였고,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문화재 정화활동 같은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남한산성 방문객도 우연한 기회를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 및 공연형 프로그램의 상설화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나 남한산성의 군사경관적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무예공연이나 전통무기체험 행사를 통해 군사요새 남한산성의 태생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광지원 농악이나 국악 형식의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을 접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 산성도시로 들어온 느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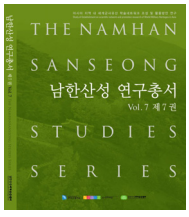
정리하면, 2009년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학술연구와 일반 성인대상 강좌,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합형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가고, 전시형 및 공연형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하면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를 마련해 가고 있었다.

Ⅲ. 세계유산 등재와 교육 프로그램의 과제 변화

6년여의 노력 끝에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남한산성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했다. 그동안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던 일반 대중의 이미지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심어주는 '세계유산에 대한(about) 교육'을 확대해야 했고,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을 위한(for) 교육'을 통해 세계유산의 관리 주체가 기관만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종교조직 등의 지역공동체의 원활한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더해졌다.[10)]

〈표 4〉 2015년~2019년 남한산성 학술 및 연구 활동 내용

- 남한산성 심포지엄 및 학술 활동 -			
회차	시기	주제	학술연구성과
9	2015.10.	아시아지역 세계군사유산 학술네트워크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총서 6권
10	2016.11.	아시아 성곽유산 네트워크 구축	연구총서 7권
11	2017.11.	군사유산의 역사적 콘텐츠 발굴과 활용 사례	연구총서 8권
12	2018.10.	성곽유산의 연구성과와 보존정비 방향	연구총서 9권
13	2019.10.	아시아지역 내 세계유산 우수보존 관리 사례 연구	



10) 지역공동체의 참여에 관해서는 문성진의 발표문 참조.(문성진, 「남한산성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보존 및 활용」, 『아시아 지역 내 세계유산 우수보존관리 사례 연구』, 2019년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기존의 학술활동이 세계유산 등재요소의 발굴과 이해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및 교육과 활용 부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었다. 심포지엄의 주제를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지향점으로 '아시아지역 성곽유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확장시킴은 물론, 남한산성에 관심을 가진 공감세대로서 보존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세력의 확보도 추진해 나갔다.

우선 남한산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남한산성지킴이'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관리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갔다. 게다가 외국인 탐방객을 위한 외국어 해설서비스를 위해 '외국인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주민과 해설사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표 5〉 2015년~2019년 일반성인 대상 남한산성 아카데미 및 지역주민지킴이 강좌 운영 내용

- 남한산성 관련 강좌 프로그램 -			
연도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대상
2015	성곽 아카데미	심도 있는 성곽이해 및 답사	성인, 교원 등
2015	외국인 해설사 양성	외국어해설을 위한 해설사 양성 교육	외국인
2016	성곽 아카데미	남한산성의 군사훈련	일반인
2017	남한산성 아카데미	전통한지 제작과 궁궐도배	일반인
2018	문화유산지킴이 양성	남한산성 문화유산지킴이	주민 및 성인
2019	남한산성 아카데미	남한산성의 역사와 정신 등	일반인

등재 이후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센터에서 추진한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11] 2019년에 '성곽투어 및 숲 생태 탐방'과 '문무과 별시' 프로그램을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답사형 투어 프로그램의 성격에 '세계유산을 통한(through) 교육'의 형태로 참여 활동 부분을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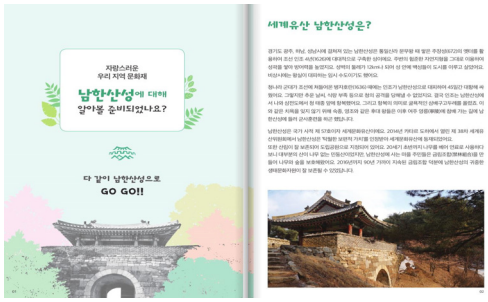
참여 학생들을 팀별로 나누어, 태블릿pc와 개인용수신기 등의 IT기기를 사용하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행궁과 숲을 누비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남한산성의 역사, 인물, 자연을 알아가는 형태의 '나만

11) 남한산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부록 참조.

산성 가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팀별 미션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을 게시하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팀원과의 소통과 협동,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최근 교육 유행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15개 학교 41개 학급 1,108명이 참여하였다.

'문무과 별시' 프로그램은 11개 학교 328명의 대상자가 문인과 무인 복장으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치르는 상황극에 참여하였는데,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런닝맨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남한산성에 많이 와봤지만 등산만 했었는데, 이번에 깊이 알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2019년 성곽투어 및 숲 생태 탐방, 문무과 별시 사업

학생 대상 프로그램 활동 사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며, 텍스트나 해설·강의식 형태 보다는 직접적인 활동이 동반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등재 이후에도 학술활동과 일반인 대상의 강좌,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사진 전시와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퍼레이드 등의 공연형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통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Ⅳ. 역사문화관 건립 이후 박물관 교육으로의 변화와 전망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5가지(5Cs) 가운데 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부분은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2] 박물관이 과거의 유물이나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역할에 더하여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학교교육 형태의 환경에서는 교육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고, 과제나 시험의 형태로 교육효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피드백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피드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예산규모의 추이나, 사업건수, 혹은 참여자 수의 변동 같은 양적 통계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질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림 1]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가칭) 조감도(설계공모당선작)

12)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해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신뢰도(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 공동체(Community)의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역사문화관의 기본적인 전시방향이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대한(about) 교육' 성격에 가까우며,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위에 박물관교육의 형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 전시되는 유물이나 설명하는 내용이 그저 관조(觀照)의 대상으로 그치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감세대의 양성'이라는 주제에 맞게 세 가지 방향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전쟁을 통한 무기발달과 축성술이 교류한 증거'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남한산성이 가지는 위상에 걸맞은 '성곽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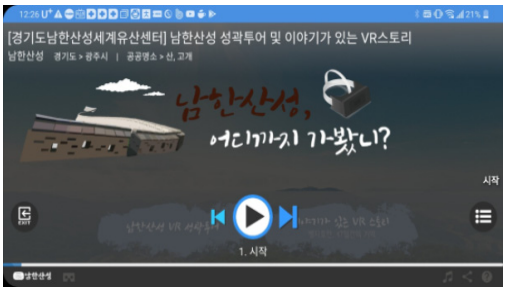
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의 과정에 학술연구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추후로 국내 성곽전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수원화성박물관, 계양산성박물관 등 관련 박물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구상하거나, 국내외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의 성곽 전문 아카이브 구축[13] 같은 선행 작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유산에 대한 기본 이해', '한국 성곽 건축의 역사', '남한산성이 가지는 세계유산적 가치'와 '아시아지역 성곽 유산의 비교'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본 강좌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성곽 관련 연구자들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전공자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연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세계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산성은 사실상 거대한 야외 박물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기초적인 검색으로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설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탐방객에게도 다가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수도권 근방의 산책로 겸 관광명소로서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 보다는 나들이 장소로서의 도립공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중이 남한산성을 방문하기 전에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문화재 해설 영상, VR스토리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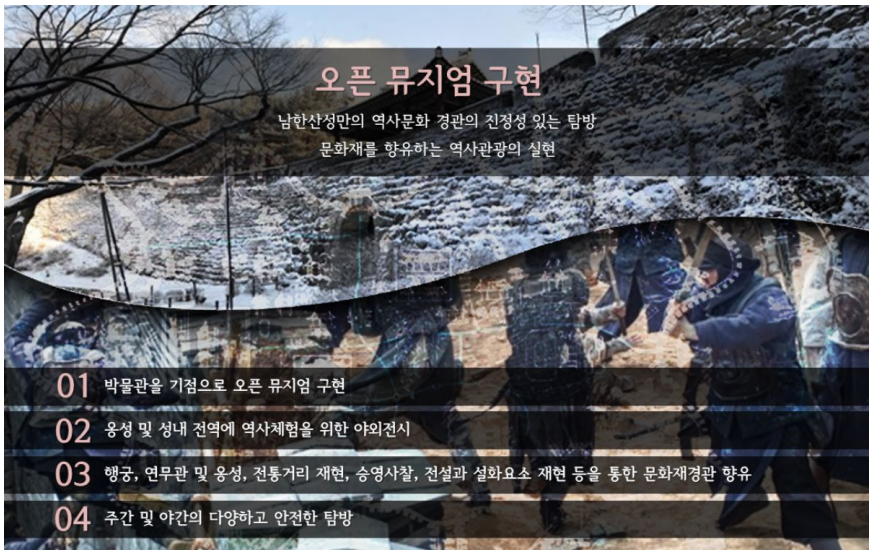
13) 박제광, 2018, 「남한산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건립 전략」, 『연구총서 9: 국내 성곽의 보존과 활용』,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84쪽.

〈표 7〉 남한산성 문화재 해설 영상 및 VR스토리 사이트

센터 유튜브 계정(문화재 해설 영상) 및 VR스토리 사이트 화면	
https://www.youtube.com/channel/UC1E0yz4b78xnMTw8-9zo4Cg/videos?disable_polymer=1	
	
https://look360.kr/vrstory/namhansanseong/namhansanseong	

교육 콘텐츠가 유튜브나 SNS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박물관 전시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직접 장소에 가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 형태의 남한산성 답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픈 뮤지엄을 구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옹성이나 성내 전역에 역사체험을 위한 야외전시를 갖추거나, 연무관 및 옹성 주변에 군사경관을 재현하여 야외에서도 남한산성의 다채로운 모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림 2]『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2019)』,「남한산성 문화재 활용 계획」, 706쪽

마지막으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다양한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박물관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14] 학위논문이 학술지 게재 논문에 비하여 높은 비중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체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운영 및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성과 관심의 표출이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문화관의 상설전시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about)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남한산성 아카데미와 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세계유산을 위한(for) 교육'의 결과로서 보존관리 활동의 참여자를 양성하며, 그동안 남한산성에서 운영 해 온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세계유산을 통한(through)' 공유세대의 국제적 이해감각을 길러주는 커리큘럼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은 성곽 관련 연구자가 반드시 가봐야 할 연구 공간,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 접할 수 있는 수준별 강의 제공 기관,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유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학교교육 연계기관으로서 '교육 콘텐츠 제작 박물관'을 지향한다면 가치 공유세대의 양성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이정은, 최고운, 2019,「박물관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문화정책논총』34(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V. 나오는 말

'남한산성'이라는 명칭 앞에 '세계유산'이라는 수식어가 더해진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수식어의 유무 차이를 중요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포털사이트에 '남한산성'이라고 쳤을 때의 결과 화면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산책코스라거나, 백숙을 맛볼 만한 관광지로서의 남한산성, 혹은 무언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역사적 사건 장소로서의 남한산성이 대부분일 것이다.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기울였던 노력과 성과에 견주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감세대를 확충해 가는 노력의 성과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이지는 않은 느낌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정보검색의 결과물은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유튜브 세대'라고 불릴 만큼 기본적인 정보와 재미, 그리고 직접 체험요소가 가미된 콘텐츠의 소비가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이다. 세계유산 교육에 대한 방법상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하고, 노출한다면, 세계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9년부터 남한산성에서는 전문가의 연구, 일반성인 대상의 강좌, 그리고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 등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등재 전후, 시기에 따라 주요 지향점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역사문화관 건립에 맞춰 다시 한 번 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남한산성은 다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많이 인식되는 점은 병자호란 관련 콘텐츠였다. 최근 '전쟁사 토크멘터리(국방TV)'라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인기 역사강사가 출연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MBC)'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물론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세계유산을 중심 소재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남한산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시태그 형태로 나열한다면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생성될 것이고, 그것들을 크게 분류한다면, 건축, 전쟁, 문화재, 무형유산, 종교 등의 다양한 주제어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제어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한다면, 역사문화관의 상설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 보존관리의 당위성과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세대를 확충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2007,『청소년과 함께 하는 세계유산 : 배우고 존중하며 행동하자』, 문화재청.
강나현, 2009,「'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을 활용한 세계문화유산교육:창덕궁 수업지도안을 사례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권, 2012,「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의 가치」,『국제이해교육연구』7(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백진주, 2012,「지역문화와 연계한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박물관학보』22, 한국박물관학회.
최재헌, 2015,「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의의」,『건축』59권 12호, 대한건축학회.
이지혜 외 2인, 2016,「세계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 경향과 가치 탐색」,『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6-7호.
공성현, 2017,「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의 특징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용, 2017,「세계유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시론」,『열린충남』79권, 충남발전연구원.
오영찬. 2017,「세계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시도 : 모바일 기반 현장체험학습」,『미술사학』33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한송이, 2017,「세계유산교육의 연구 및 실천 동향과 최근 쟁점」,『기전문화연구』38-2호,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박제광, 2018,「남한산성의 가치확립을 위한 박물관 건립 전략」,『남한산성 연구총서 9』,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오선화, 2018,「수원화성박물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활용 사례」,『남한산성 연구총서 9』,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채경진, 2018,「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황과 사례」,『문화비즈니스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자료집』, 2018권 1호,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문성진, 2019,「남한산성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보존 및 활용」,『아시아 지역 내 세계유산 우수보존관리 사례 연구(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이정은, 최고운, 2020,「박물관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 :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제34집 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록. 연도별 남한산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09	등(燈)문화제 교육체험, 문화마당	4.18~5.9	6,720	교육, 행사	전체
	역사체험 캠프	8.10~15	220	교육, 체험	초등
	역사 아카데미	9.~10./11.~12.	104	교육	성인
	문화유산탐방	7.13~12.9	4,011	교육, 체험	전체
	남한산성 해설사 심화교육	8.28~10.16	30	교육	해설사
2010	문화재지도 만들기	4.~7. / 9.~11.	2,343	교육, 체험	초등
	고고학 탐험대	4.~7.	149	교육, 체험	가족
	어린이 전통문화학교	8.10~18	120	교육, 체험	초등
	생태 아카데미	8.25~11.10	23	교육	성인
	생생(生生) 숲 여행	9.~10.	779	교육	가족
	역사 아카데미	4.8~5.13/6.3~7.8	78	교육	성인
	특별탐방 프로그램	3.~11.	1,026	교육	단체
	테마가 있는 명상프로그램	9.~11.	102	교육	성인
	주민 역사 강좌	11.11~12.2	42	교육	주민
	솔바람책방 교육프로그램	1.~12.	-	교육	주민
	숭렬전 및 현절사 참배	9.~10.	60	교육	성인
2011	문화재지도 만들기	4.~6.	423	교육, 체험	초등
	함께, 남한산성에서 놀다	5.~7./9.~11.	25	교육	초등
	성곽으로 만나는 남한산성여행	9.~11.	212	답사	중등
	생생(生生) 숲 여행	4.~11.	1,088	교육	초등
	역사 아카데미	4.~5./9.~10.	80	교육	성인
	명상 강좌	5.~10.	125	교육	성인
	특별탐방 프로그램	4.~11.	719	교육	단체
	지역주민 세계유산지 답사	3.24.	60	답사	주민
	주민 교양 영어	3.~4.	31	교육	주민
	어린이 전통문화학교	7.~8.	125	교육, 체험	초등
	내가 인조, 라면	9.~12.	314	교육, 체험	초등
	설화로 만나는 남한산성여행	4.~6./9.~10.	300	교육	가족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7.~12.	11	체험	대학생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12	과거시험 보러 오시오	10.3.	49	체험	초등
	임금님, 납시오!	6.~10.	425	체험	초등
	뚜르 드 산성!	4.~10.	108	체험	가족
	풍류일가	10.	57	체험	가족
	성곽을 지켜라!	9.~10.	4,000	체험	일반인
	왕들의 행행	6.~10.	3,500	체험	일반인
	다례체험	9.~10.	1,600	교육, 체험	일반인
	토요 전통문화학교	3.~10.	516	교육	가족
	내가 인조, 라면	4.~10.	351	교육, 체험	초등
	남한산성에서 체험하는 한국문화	6. / 10.	54	체험	가족
	남한산성지킴이 포스터대회	9.~10.	-	전시	학생
	역사문화 교원연수	7.30~8.3	30	교육, 체험	교원
	청소년 세계유산지킴이	4.~11.	15	교육, 활동	청소년
	떴다! 남한산성 탐험대	4.~9.	228	교육, 체험	초등
	함께, 남한산성에서 즐기다	4.~11.	119	체험	소외계층
	역사 아카데미	4.~5. / 9.~10.	74	교육	성인
	한가위 차례예절교육	9.15.	50	교육	가족
2013	이서장군과 성첩을 수호하라!	4.~10.	3,430	교육, 체험	초등,가족
	산성 동의보감	5. / 10.	-	체험	일반인
	전하의 힐링명상	6. / 10.	51	체험	일반인
	행궁에서 만난 장금이	9.~10.	342	체험	가족
	이야기 톡톡	3.~4.	78	교육, 체험	아동
	자연은 촉촉	4.~7.	436	교육, 체험	가족
	놀이 팡팡	8.~10.	205	교육, 체험	초등
	남한산성 역사문화 교원연수	8.5~8.9	30	교육, 답사	교원
	남한산성행궁 사생대회	9.30	-	행사	학생
	문화재지도 만들기	5.~6.	308	교육, 체험	초등
	청소년 세계유산지킴이	3.~10.	15	교육, 활동	청소년
	역사 아카데미	5.~6. / 9.~10.	61	교육	성인
	다함께 차차茶	7.~8.	1,604	교육, 체험	일반인
	왕실의 패션	9.~11.	1,620	체험	일반인
	남한산성행궁 만들기 대회	10.22	123	행사	학생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14	진격의 삼학사	4.~5./9.~10.	343	교육	학생
	이서장군과 성첩을 수호하라!	4.~6./9.~10.	2,651	체험	학생
	산성 오아시스	7.~11.	26	교육, 활동	대학생
	찾아가는 남한산성 OUV탐험대	5.~6. / 11.	298	교육	학생
	사진 속에 담아본 문화재이야기	5.~6. / 10.~11.	33	교육	일반인
	책 읽는 행궁〈Book적Book적〉	4.~6. / 9.~10.	3,289	체험	전체
	헤리티지 톡톡 Talk! Talk!	9.20~21	552	공연	전체
	우리동네 보물찾기 프로젝트	3.~11.	104	체험	초등
	이서장군과 성첩을 수호하라!	4. / 9.~10.	436	체험	초등
	역사문화 교원연수	8.4~8.8	37	교육, 답사	교원
	세계유산등재기원 남한산성그리기대회	5.~10.	98	행사, 전시	학생
	이서장군과 성첩을 수호하라!	9.20~21	698	체험	전체
	청소년 세계유산지킴이	4.~12.	20	교육, 활동	청소년
	산성 동의보감	9.20~21	530	체험	일반인
	왕실의 패션	9.~10.	482	체험	일반인
	다함께 차차茶	9.~10.	485	체험	일반인
	꿈꾸는 행궁공방소	9.~11.	619	체험	일반인
	남한산성 외국인 문화체험	4.~11.	105	교육, 체험	외국인
	남한산성에서 多함께 놀자	9.~10.	28	교육	다문화
	4백년의 천작지성/천년의 세계유산	7.24	500	축제	일반인
	세계유산남한산성 경기도무형유산을만나다	9.20~21	6,303	축제	일반인
	웰컴 투 월드 헤리티지	9.20~21	6,958	축제	일반인
2015	악공청 음악회	5.~6. /9.~10.	1,855	공연	전체
	으랏차차 수어청	5.~11.	3,990	공연	전체
	연희야 놀자	5.~7. / 9.~11.	3,130	공연	전체
	등재 1주년 기념 행사	9.11~13	4,500	행사	전체
	왕실의 패션	5.~7. / 9.~11.	547	체험	전체
	행궁 놀이터	5.~7. / 9.~11.	7,583	체험	전체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15	꿈꾸는 행궁공방소	5.~7. / 9.~11.	837	체험	전체
	활을 당겨라!	5.~7. / 9.~11.	3,393	체험	전체
	석봉이와 어머니	7.~8.	122	교육, 체험	전체
	다 같이 놀자! 산성 한바퀴	9.~11.	539	답사	전체
	훌라 훌라 산성소풍	5.~7. / 9.~11.	385	교육, 체험	초등
	성곽 아카데미	5.~6. / 10.	75	교육	성인
	취고수악대 퍼레이드	5.~7. / 9.~11.	5,175	공연	전체
	세계유산 스테이캠프	8.	94	체험	전체
	세계유산 특별전	9.~11.	-	전시	전체
	산성열정 락커	4.~5. / 10.~11.	2,690	공연	전체
	외국인 해설사 양성	4.~12.	9	교육	외국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산성갤럭시	3.~11.	19	교육, 활동	학생
2016	남한시재	5.~6. / 9.	12,311	공연	전체
	남한산성 토크콘서트	10.3	300	행사	전체
	세계유산 스테이캠프	8.	99	체험	전체
	왕실의 패션	4.~10.	1,808	체험	전체
	책 읽는 행궁	4.~10.	3,742	체험	전체
	활을 당겨라!	4.~10.	3,164	체험	전체
	석봉이와 어머니	8.	110	교육, 체험	전체
	행궁 들차회	5. / 10.	500	체험	전체
	조선 시그널	5. / 10.	1,899	체험	전체
	싱글생글 숲 여행	5. / 10.	363	교육, 체험	전체
	성곽 아카데미	6.	115	교육	성인
	외국어해설 성곽투어	5. / 10.	243	체험	외국인
	스탬프 투어	9.~11.	1,488	체험	전체
	KBS 열린음악회	6.2	8,500	행사	전체
	전통혼례	5.~10.	2,459	행사	전체
	연희야 놀자	5.~10.	3,560	공연	전체
	취고수악대 퍼레이드	5.~10.	3,110	공연	전체
	남한산성 사진공모전	6.~12.	20,000	전시	전체
	산성열정 락커	5.~10.	3,610	공연	전체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17	왕실의 패션	4.~11.	818	체험	전체
	활을 당겨라!	4.~10.	4,069	체험	전체
	책 읽는 행궁	4.~10.	1,508	체험	전체
	석봉이와 어머니	7.~8.	54	교육, 체험	전체
	행궁 들차회	5.15 / 10.3	540	체험	전체
	세계유산 산성스테이	8.	99	체험	전체
	남한산성 토크콘서트	9.17	300	행사	전체
	전통무예 상설공연 남한시재	4.~9.	5,170	공연	전체
	싱글생글 남한산성 숲 여행	4.~9.	468	교육, 체험	전체
	백투더산성	4.~11.	844	체험	전체
	남한산성아카데미 (전통한지제작과 궁궐도배)	7.	30	교육	일반인
	전통혼례	5.~10.	2,150	행사	전체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농악공연	4.~11.	10,590	공연	전체
	산성열정 락커	9.~10.	1,870	공연	전체
	남한산성 야조 뮤지컬 공연	9.	600	공연	전체
	순회전시, 성곽특별 사진전	4.~11.	42,390	전시	전체
	흥해라 성내장	5. / 10.	3,000	행사	전체
2018	행궁 교육체험	5.~11.	4,176	교육, 체험	전체
	전통무예 시연	6.~11.	1,421	공연	전체
	야조 공연	9.	785	공연	전체
	토크콘서트	6.~10.	126	교육, 체험	가족
	성곽투어	6.~10.	662	교육, 체험	전체
	산성스테이	6~10.	120	체험	가족
	찾아가는 구글 부스	6.~11.	4,866	체험	전체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	8.~11.	283	체험	전체
	전통혼례	5.~11.	2,590	체험	전체
	전통의례 활성화	1.~12.	5,600	행사	전체
	마라톤 대회	10. / 11.	600	행사	일반인
	남한산성 아카데미	7.~11.	120	체험	전체
	숲 생태 탐방	7.~11.	120	체험	전체
	연희 한마당	5.~11.	8,750	공연	전체
	수호천사 체험	8.~11.	1,160	체험	전체
	전통무기 활용 체험	7.~9.	872	체험	전체
	남한산성 문화유산지킴이	6.~11.	25	교육	일반인

연도	사업명	기간	참가인원	구분	대상
2019	행궁교육 및 전통무기 체험	6.~11.	21,611	교육, 체험	전체
	연무관 전통무예 시연	6.~11.	1,730	공연	전체
	취고수악대 시연	6.~11.	8,530	공연	전체
	성곽투어 및 숲 생태 탐방	5.~11.	1,108	교육, 체험	학생
	세계유산 산성스테이	4.~6.	103	체험	아동
	찾아가는 구글 부스	8.~11.	1,496	체험	전체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	6.~11.	328	체험	초등생
	전통혼례	5.~11.	2,200	체험	전체
	전통의례 활성화	1.~11.	6,900	행사	전체
	남한산성 아카데미	6.~11.	600	교육	일반인
	연희 한마당	4.~11.	11,630	공연	전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지원사업	7.~12.	100	답사	주민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	7.~11.	250	교육, 활동	학생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❹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현황과 전망

- 뮤지엄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도미솔

백제세계유산센터 유산관리팀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❹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현황과 전망

- 뮤지엄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도미솔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유산관리팀

Ⅰ. 서론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발굴 및 문헌사 연구 등을 통한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오던 중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 활용이 대두되기 시작했다[1]. 문화유산을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 사업, 2014년부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016년부터 문화재 야행 사업, 2017년부터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2020년에는 세계유산 축전 등 다양한 테마의 활용사업이 진행되오고 있다. 이런 사업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유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유산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관광, 교육 등으로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교육이 필수적이다. 문화재청, 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에서 앞으로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재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재 교육사업의 유형이 과거에는 답사프로그램, 강연, 학교 역사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였다면, 최근에는 앞서 언급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5월 시행되었다. 향후 문화재 교육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 유적별 특성화된 교육 사업이 개발될 예정이다.

1) 채경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황과 과제」, 『문화관광 웹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9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2]는 8개 유적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유산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또 개별 단위유산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본 발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을 위해 그 동안 운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백제역사유적지구 교육

2.1. 교육 컨텐츠 개발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 이후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올바른 가치 전달과 교육, 지식의 향유를 위해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영상 분야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캐릭터 천봉이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여행하는 “고고!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며, EBS 문화유산 코리아 다큐멘터리를 2015년 11편, 2016년 13편 제작하였다. 제작 영상은 영문 자막을 제작하여 EBS English 웹페이지 업로드, EBS America 채널을 통한 해외 송출로 해외 문화유산 교육 및 외국어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BS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주·부여·익산 지역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작된 콘텐츠들은 추후 학교 현장학습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그림 1] 캐릭터 천봉이와 애니메이션

2)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8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공주, 부여, 익산에 소재한 후기 백제 웅진과 사비의 8개 유적(9개 사적)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그림 2] EBS 문화유산여행길

교육교재로는 6~9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백제역사유적지구 어린이 그림책 ‘안녕 나는 백제야’책자와 워크북, 그리고 초등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 ‘백제문화 비밀코드를 찾아라!’를 개발하였다.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 삽화, 만화 등 교육 타켓층에 맞춰 컨텐츠 구성을 다양화하였으며,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책의 내용을 복습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북을 통해 현장학습을 유도하였다. 또한, 작은 도서관 어린이 교육특강, 초등학교 수업 자료, 교내 답사 동아리 등 교육 프로그램 요청 시 교재를 지원하였다.

[그림 3] 어린이 그림책 “안녕, 나는 백제야”

[그림 4] 초등생 교육교재 “백제문화, 비밀코드를 찾아라”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사 유명강사인 최태성 선생님을 초청하여 눈높이에 맞추어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7년 부여문화원, 2018년 국립공주박물관, 2019년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으며, 특강마다 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림 5] 명사 초청 백제역사유적지구 특강

이외에도 '교육과 관광을 통한 세계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2019년에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2.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2.1. 레고 체험 프로그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구성 요소·구조·조형성 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론 교육과 레고블록을 활용한 유적 모형 만들기, 레고 자율주행 놀이, 자유 체험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관심 및 이해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림 6] 백제역사유적지구 레고 체험프로그램

2.2.2. 백제문화유산 녹턴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지난 2015년 7월 8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국립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문화향유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백제문화유산주간 프로그램 중 '백제문화유산 녹턴(Nocturne)'은 한여름 밤에 옛 백제왕도인 '공주'·'부여'·'익산'의 중요 유적과 박물관을 연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밤 노을이 물든 유적, 별빛을 담은 유적을 거닐며 유적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유물들을 학예사의 해설과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림 7] 2019년 백제문화유산주간

이후에도 EBS와 함께하는 교육 융합콘텐츠 교육자료 제작, 그림과 이야기로 보는 컬러링북 제작, 현장에서 즐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100배 즐기기 등 교육과 체험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2.3. 박물관 교육 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위치한 공주, 부여, 익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이 각각 설립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유적 내에 위치한 전시관 형태의 박물관들이 있다. 유적과 출토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박물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현황

지역	국립박물관	유적 전시관·박물관	비고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방문자센터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웅진백제역사관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사비도성체험관	
		정림사지박물관	
		능산리고분군 아트뮤지엄	
익산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전시관(왕도역사관)	

2.3.1. 국립박물관 교육

국립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초등, 성인, 노인, 외국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박물관 전시나 유물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공주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대상으로 공주 어린이박물관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라! 무령왕의 보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주말프로그램, 어린이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매직홀 탐험대, 향로 속 빛을 찾아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 문화나눔·노인·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매달 문화강좌를 열고 학급 단체 프로그램인 ‘나만의 수막새 배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8] 국립박물관 교육프로그램

2.3.2. 유적 전시관·박물관 교육

유적 내에 위치한 전시관은 노후화된 기존 전시관을 디지털 전시관 형태로 개편하고 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한 웅진백제역사관은 터치 키오스크, 증강현실(AR), 인터랙티브 북(Interactive Book) 등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백제의 공주 천도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다루어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림 9] 웅진백제역사관

부여 능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은 아트뮤지엄으로 개편하여 2019년 3월에 재개관했다. 백제 역사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들로 구성한 아트뮤지엄은 360도 가상현실 시네마존, 백제금동대향로, 석조사리감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콘텐츠, 나성 토층 단면 및 토축 방식 아트월, 능산리사지 증강현실 체험존, 인터랙티브 터치 테이블, 돌방무덤 가상현실 갤러리 등 콘텐츠로 채워졌다.

[그림 10] 능산리 아트뮤지엄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제 왕도, 익산 문화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로 문화강좌를 열었다. 더불어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박물관 나들이'프로그램을 '백제 사람들이 사랑한 보석, 유리'를 주제로 지역의 백제문화에 대한 교육과 뜨락음악회가 함께하는 복합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상시적으로 학습지를 배부하여 어린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1] 왕궁리유적전시관 교육사업

Ⅲ. 맺음말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고학 유적으로 그 형태가 소실되어 유구만 남아있는 유적들이 많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활용하면 유적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과 전시관에 디지털 복원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영상미와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백제 컨텐츠를 제작하여 박물관 교육사업과 연계, 적용한다면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는 발굴체험, 문화재 관련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교육 교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재 교육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유산교육체계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가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온전히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❺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교육현황과 전망

이홍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무관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⑤

세계유산 조선 왕릉의 교육현황과 전망

이홍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학예연구사

Ⅰ. 들어가며

조선왕릉은 조선(1392~1897)과 대한제국(1897~1910)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으로 모두 42기의 능에 73명이 잠들어있다. 총 42기의 왕릉 중 북한 개성에 소재한 2기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10년 전인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보호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유네스코가 정한 10가지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여 인류에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말한다.

조선왕릉은 등재기준 3, 4, 6을 충족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 특유의 자연관과 세계관에 의해 타 유교문화권 왕릉과는 다른 독특한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를 보여주며(기준Ⅲ), 조선왕릉의 독특한 공간구성과 예술적 독창성을 보이는 건축물, 석물 등이 50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옴에 따라 당시의 사상, 정치관, 예술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기준Ⅳ), 또한 현재까지도 능마다 매년 제향을 지내고 있어 효와 예에 기반한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기준Ⅵ)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특징 중 하나는 연속유산이라는 것이다. 서울, 경기 및 강원도의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40기의 능을 묶어서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왕릉 중 크고 화려한 능이나 태조나 세종과 같이 역사적 의의나 업적이 탁월한 왕의 능을 골라서 등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왕릉을 등재한 것인데, 이는 세계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가 개개의 왕릉이 훌륭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대한제국 500여 년 내내 단절 없이 이어온 독특한 장묘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긴 세월에 걸친 왕릉의 변화를 조명할 수 있고, 다른 문화권의 장묘문화와의 비교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이어져 온 독특한 장묘문화가 발굴조사 없이도 조성 과정을 기록한 의궤나 관리 상황을

기록한 능지 등 풍부한 기록문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조선왕릉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친화적인 조영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신의 정원'이라 부를 만큼 왕릉을 둘러싼 숲의 경관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왕릉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능 주변에 수목을 심고 보호하는 것이 당대부터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결과 도시규모가 팽창한 오늘날 조선왕릉들은 도심 및 대규모 주거지역에 연접한 도시 속 자연,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경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시대로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왕실 조상의 무덤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정성스럽게 참배하고 관리해 온 조선왕릉은 일제강점기에도 대한제국 황실 업무를 계승한 이왕직(李王職)의 관리 하에 있었던 덕분에 일제의 무작위적 발굴조사와 유물반출, 도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비교적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조선왕릉은 1954년 이왕직 재산의 처분 내용을 담은 구황실재산법(舊皇室財産法)에 의해 국유화되었고,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보호관리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왕직이 주체가 되어 관리의 명목으로 왕실 재산을 처분하고 역사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방 후 개발 과정에서 왕릉 내 부지를 국가기관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민간에 불하하기도 하여 주변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조선왕릉은 전부가 비교적 온전히 보전되어 왔다.

1960년대 각 능 현장은 '산림보호구', '산림보호구사무소'로 불렸다가 70년대부터 '지구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칭에서 왕릉이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왕릉을 중심으로 한 권역 내 산림의 관리가 주요 업무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문화재청이 출범하면서 궁원문화재과, 궁능관리과, 궁능문화재과 등을 거쳐 조선 왕릉의 복원과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조선왕릉의 경관 및 능제 복원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왕릉의 현황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이어 2012년 조선왕릉을 관할하는 조선왕릉관리소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왕릉의 능제복원 및 보존관리, 활용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조선왕릉의 관리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의 현장관리와, 수리·복원, 활용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9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궁궐 및 각 왕릉 관리사무소, 궁능의 수리·복원 업무를 담당하던 궁능문화재과 등이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Ⅱ. 세계유산 등재 이후 10년, 조선왕릉 보존관리, 전시 및 교육 현황

조선왕릉 연구

지난 왕조의 유산으로 신라, 백제의 왕릉들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화려한 부장 유물이 출토되지도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던 조선왕릉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부터이다. 2000년대 들어 조선왕조 의궤(儀軌)와 궁중기록화 등 궁중 또는 왕실문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왕릉 역시 조선왕실의 구성원과 문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궤, 각종 등록이나 능지 등 왕릉 관련 1차 사료가 적극적으로 발굴, 번역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켰다.

한국사, 미술사, 건축사, 조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왕릉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며 조선왕릉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부각되자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문화재청이 대한민국 소재 조선왕릉 40기 전체를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조선왕릉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면서 왕릉에 대한 학술연구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한 2006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선왕릉에 대한 종합조사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조선왕릉 40기 및 왕실 원묘에 이르는 광범위한 실측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성과를 공개하였다.

조선왕릉 보존관리

2006-7년 2년에 걸친 학술연구 끝에 2008년 등재신청서 제출, ICOMOS의 질의응답 및 실사를 통해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조선왕릉에 대한 이코모스의 평가를 토대로 세계유산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건에 유산에 대한 설명과 등재기준,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등재에 따른 이행 확약사항과 권고안이 명시되어있다. 태릉권역 클레이사격장과 체육훈련시설의 철거(2008년, 2014년), 의릉권역 한국예술종합학교 건물철거(2012년), 그리고 서오릉권역 서측 건물들의 환경개선(2012년)의 내용이 확약사항으로 명시되었고, 아울러 권고안으로 12개 권역의 완충구역의 적절한 개발을 위한 지침 제정, 관광관리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유적의 해설을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 포함되었다.

등재 이후 유네스코의 관리협약을 준수하면서 세계유산에 걸맞는 조선왕릉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훼손된 능제와 경관을 복원하며, 조선왕릉을 세계인이 함께 누리고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조선왕릉 등재 이후 10년간 문화재청은 각 왕릉의 능제와 경관을 복원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조선왕릉의 능제복원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능제복원은 왕릉 내 부적합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 지형과 경관을 회복하고, 능제를 구성하는 고건물·석물·제례로 등의

시설을 수리하거나 멸실된 것을 복원하며, 왕릉 주변의 물길과 숲을 정비하여 가꾸고, 관람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등의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유산 등재 시 이행을 약속한 태릉 내 선수촌과 사격장,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철거 등을 모두 완료하지는 못했으나 2018년까지 13동의 부적합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다양한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 1962년부터 구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무상임대되어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던 의릉은 국가정보원이 이전하면서 상당 부분 본래 왕릉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여주에 위치한 세종영릉도 1977년 행해진 세종대왕 숭모를 위한 영릉 성역화로 인해 변형된 것을 다시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8년까지 수라간, 수복방, 재실 등 멸실된 고건축물 26동이 복원되었고, 28동의 현존 고건물이 보수·정비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굴조사 및 문헌고증을 실시하고, 왕릉 내 각 공간의 성격과 위계에 맞게 하며 되도록 본래 원산지의 재료와 공법도 지켜 복원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남아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대비한 원형기록과 DB구축 역시 지속하고 있다. 왕릉 숲은 6-70년대 황폐한 산림녹화를 위해 기존 경관의 고려 없이 도입된 외래수목 등을 정리하고 고증과 환경에 맞는 수목으로 안정된 식생분포를 유지하면서 가꾸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왕릉 숲을 가꾸는데 필요한 전통수목과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등은 양묘장과 생산림을 조성하여 키워내고 있다. 관람시설물 정비는 문화재를 압도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하고, 특히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능제복원의 결과는 관람서비스의 개선으로 나타난다. 2013년 숭릉, 2014년 사릉 및 강릉, 2015년 영원 및 회인원, 2017년 의친왕묘와 덕혜옹주묘, 2018년 파주 장릉, 2019년 양주온릉 등이 능제복원을 마치고 관람객에게 개방되었고, 올해는 홍유릉 내 고종 후궁들의 묘역과 서삼릉 내 태실 권역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 언급한 조선왕릉에 대한 종합적 조사,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정리된 학술연구 성과, 능제복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및 고증 결과, 실측 자료 등이 조선왕릉의 전시, 교육에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왕릉 전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왕릉의 홍보와 교육을 위해 서울 태릉과 강릉에 조선왕릉전시관이 건립되어 2009년 12월 문을 열었다. 조선왕릉전시관의 전시 내용은 전체 조선왕릉의 연표와 분포, 조선의 국장과 왕릉의 조성과정, 조선왕릉의 내외부 구조와 상설, 왕릉의 관리와 제례 등 조선왕릉에 대해 알아야 할 종합적인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조선왕릉전시관 전시구성: 2009년 개관〉

세계가 주목한 조선왕릉	
패널 (2)	세계가 주목한 조선왕릉, **조선왕릉 분포도**
영상 (6)	조선왕릉 사계영상 6개
복제품 및 모형 (1)	금천교
3D VR	전신감응 2개, 기어 2개, DID 1개
조선의 국장	
패널 (13)	조선의 국장, 정조대왕 애책문, 왕의 승하, 삼도감 설치, 삼도감, 빈전에 안치, 왕의 즉위, 시호를 올림, 명당 선정, 왕릉 조성, 왕으로 모심, 왕릉의 부장품, 종묘에 안치
영상 (5)	조선왕실의 기록문화, 재궁 찬궁, 순종황제 국장, 조선왕릉 입지조건, 정조발인반차도
복제품 및 모형 (4)	장렬왕후 빈전도감의궤, 명릉도, 순조인릉 산릉도감의궤, 정조 구 건릉 부장품
한눈에 보는 조선왕릉	
패널 (11)	한눈에 보는 조선왕릉, **조선왕릉 연표**, 봉분의 형식에 따른 왕릉의 유형, 신분에 따른 왕실 무덤의 분류, **조선왕릉 공간구성**, 왕릉의 변천, 조선왕릉의 비석, 조선왕릉에 담긴 사상, 조선왕릉 내부, 조선왕릉 외부, 조선왕릉의 문양
영상_프로젝트 (2)	한눈에 보는 조선왕릉, **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영상_모니터 (6)	조선왕릉에 담긴 사상 6개
복제품 및 모형 (9)	조선왕릉 공간구성, 건원릉 신도비문 탁본, 석실로 조성한 조선왕릉, 건원릉 문무석인, 태릉 문무석인, 융릉 문무석인
조선왕릉의 관리	
패널 (5)	조선왕릉의 관리, 조선왕릉의 관리자, 능행, 조선왕릉을 모시는 사찰, 산릉제례와 종묘제례
영상 (1)	건원릉 친향례
복제품 및 모형 (5)	헌릉지, 헌릉관인, 광릉 참봉 교지, 명릉을 찾은 감회를 적은 현판, 국기판
태릉과 강릉	
패널 (6)	태릉과 강릉, 문정왕후 만장, 문정왕후 국장절차, 태릉 이야기, 강릉 이야기, 성종대왕 애책문
복제품 및 모형 (3)	문정왕후 어보, 명종 어보, 인순왕후 어보

이후 2011년에서 2016년에 걸쳐 동구릉, 서울 선릉과 정릉, 파주삼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남양주 광릉, 화성 융릉과 건릉, 고양 서오릉, 김포 장릉 등에 소규모의 역사문화관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역사문화관은 20여 평의 작은 전시관으로 전시 내용은 각 능의 능주 소개와 그 능의 특징이며 해당 왕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문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14년 왕릉 조경 관리를 위한 전통수종 양묘장이 위치한 남양주 사릉에는 왕릉 숲의 나무와 동물들을 소개하는 조선왕릉 자연생태전시관이 개관하였다. 이렇게 현재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17개 조선왕릉 사적 중 11개소에 전시관이 갖추어져 있다. 2020년 현재 개관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8개 전시관에 대하여 전시 개편을 추진 중으로, 핵심 전시콘텐츠는 유지하되 멀티미디어와 실감형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재미와 체험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구릉 역사문화관 전시구성: 2011년 개관〉

▷ 패널 (14)
- ○ 동구릉 상징이미지월
- ○ **조선왕릉 분포도**
- ○ **조선왕릉 공간구성**
- ○ **조선왕릉 연표**
  - 봉분의 형식에 따른 왕릉유형, 신분에 따른 왕실무덤의 분류
- ○ 세계유산 동구릉
- ○ 태조 건원릉
- ○ 문종 · 현덕왕후 현릉
- ○ 선조 · 의인왕후 · 인목왕후 목릉
- ○ 장렬왕후 휘릉
- ○ 현종 · 명성왕후 숭릉
- ○ 단의왕후 혜릉
- ○ 영조 · 정순왕후 원릉
- ○ 문조 · 신정왕후 수릉
- ○ 헌종 · 효현왕후 · 효정왕후 경릉

▷ 영상 (3)
- ○ **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 건원릉 산릉제례
- ○ 영조 발인반차

▷ 키오스크 (4)
- ○ 사진으로 본 조선왕릉(PC)
- ○ 어린이 조선왕릉 탐험(PC)
- ○ 동구릉 배치도(조선왕릉 연표)
- ○ 동구릉 역사문화관

▷ 조선왕릉 3D VR 체험(전신감응) (2)

조선왕릉 행사 및 교육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왕릉을 찾은 사람들의 경험은 많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문화유산보다는 학교의 소풍이나 백일장과 같은 행사 때 찾았던 녹지로 많이 기억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왕릉을 찾아 풀밭이나 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는 경험은 이제는 할 수 없다. 대신 왕릉 초입의 전시관을 둘러보고 누구의 능인지 표지판을 읽으며 향어로를 걸어올라가 정자각을 둘러보고, 숲길을 산책하는 것이 왕릉을 방문하면 하게 되는 경험이다.

이러한 단조로운 방문경험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해 주는 것이 왕릉에서의 문화행사이다. 사실 지금까지 조선왕릉의 활용은 전시관 외에는 주로 각 능에서 시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행사는 대표적으로 왕릉제향이 있다. 각 능과 원묘에서 매년 1회씩 봉행하는 기신제는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요소의 하나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조상숭배 전통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연 54회 이루어지는 조선왕릉 제향 봉행을 지원해 왔으며, 왕릉제향의 제구, 제기, 제기 등도 고증을 통해 제작 지원하였다. 왕릉제향은 조선왕릉과 관련한 무형의 유산이자 대표적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각 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태조 건원릉의 청완예초의, 세종 영릉의 세종대왕 숭모제전, 영월 장릉의 단종문화제 등이 있다. 건원릉 청완예초의는 태조 자신이 남긴 뜻에 따라 건원릉의 봉분에 일반 사초가 아닌 함흥으로부터 가져온 억새가 심겨져 있는 것에 유래한 것으로, 한식 때 이 청완(억새)를 예초(刈草)하는 것을 세계유산 등재 이듬해인 2010년부터 한식날마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든 것이다. '청완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刈草儀)',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고유제가 끝난 다음 제향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례(飮福禮)' 순으로 진행하는데 건원릉 예초 행사가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순서의 의례로 치러졌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종대왕 숭모제전은 1977년 10월 9일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세종 영릉에서 처음 거행되었다. 이 행사는 1977년 9월 14일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사 내용을 바꿔 세종문화큰잔치라는 명칭으로 거행되었고, 1981년까지는 매년 10월 9일에 실시되었으나 1982년 제6회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거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1999년 문화재청이 신설되면서 매년 양력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기리는 숭모제전 행사를 국가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세종대왕위업 선양단체, 일반 관람객이 참석하여 세종대왕릉 정자각에서 봉행한다. 탄신 다례행제에는 세종대왕이 친히 지은 '봉래의'가 국립국악원 연주단 및 무용단에 의해 공연된다.

이밖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월군의 대표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단종문화제가 있다. 단종문화제는 1967년 시작되어 매년 한식 즈음에 개최되는데, 단종국장 재현, 장릉 제향, 칡줄다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기행사 외의 문화행사들은 각 능의 특징과 시기에 맞춰 거행된다. 이들의 유형을 나누어보면 평소 관람이 제한되는 구역(능침 등)에 대한 특별개방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전문강사의 강좌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가을 억새가 하얗게 피는 절정기에 평소에 개방되지 않는 건원릉 능침공간을 개방하거나 진달래가 만발할 시기에 여주 영릉과 영릉의 진달래가 가득 핀 일정 구간의 숲길을 개방하는 등의 행사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능참봉 체험, 제향음식 만들기 체험 등의 행사가 재실 등 복원된 고건물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김포장릉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을에 연지의 연근 캐기 행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연행사는 주로 재실이나 숲길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왕릉에 잠든 왕, 왕비의 삶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전문 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은 서삼릉 태실과 조선왕실의 안태문화, 왕릉 숲 속의 우리 나무, 김포장릉의 습지생태, 왕실문화에 대한 전문강좌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와 재미, 재방문을 유도해왔으나 조선왕릉의 활용프로그램 운영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첫째로는 행사나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서 각 능관리소 자체에서 용역을 통해 행사가 각각 기획, 실행됨에 따라 조직 내에 노하우가 쌓이지 못하고 각 능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의 품질도 일정 수준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사가 주로 1회성으로 끝나고 정례화된 대표행사로 육성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왕릉간 연계를 통해 연속유산이라는 조선왕릉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왕릉의 입지 상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지만 마을 등과 떨어져서 진입하기 수월하지 않은 곳에 주로 왕릉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대중교통 등을 통한 쉬운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왕릉 내 행사에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를 기대하려면 지자체와의 협조와 지역민들의 참여 등이 필수적이다.

Ⅲ. 세계유산 조선왕릉 활용의 전망

조선왕릉은 시간적으로 조선과 대한제국 전체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600년의 범위, 공간적으로는 서울, 경기, 강원도 영월, 더 나아가서는 북한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매우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활용 소재를 가지고 있다. 같은 문화적 맥락으로 조성된 원, 묘까지 포함하면 조선 왕실의 거의 모든 인물을 망라할 수도 있다. 인물뿐 아니라 왕릉 조성을 둘러싼 제도, 의례, 미술,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경관과 자연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왕릉 숲의 가치 또한 높아졌다. 또 조선왕릉이 죽음과 장례라는 누구나 경험하는 중요한 일생의례와 관련된 유산이라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활용 주제의 다각화

지금까지 조선왕릉 관련 전시나 행사 등이 대부분 왕릉의 주인공인 왕과 왕비와 관련한 역사이야기를 소재로 해 왔다. 물론 조선왕릉에서 역사 관련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소재이지만 앞으로 왕릉의 활용에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왕릉은 죽은 자가 휴식하는 무덤이다. 속세와 떨어진 곳에 금천이나 홍살문 등으로 경계를 두어 조성한 성역이다. 이곳에서는 일상을 벗어나 삶을 관조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챙기며 명상하는 프로그램 등을 왕릉에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궁궐, 다른 왕릉,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궁능유적본부의 출범으로 처음으로 궁궐과 왕릉의 활용을 함께 담당하는 조직이 생겼다. 이로 인해 조선의 궁궐과 왕릉, 또는 왕릉과 왕릉을 연계한 활용프로그램의 기획이 용이해졌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왕릉 내 여러 요소를 연결하는 숲길, 40기의 왕릉이 소재한 18개 왕릉사적을 연결하는 조선왕릉 순례길, 궁궐과 왕릉을 연결하는 거둥길, 왕릉과 주변의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가티길 등 '조선왕릉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별 장소로 인식되어 오던 조선왕릉들을 연결한 관람코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궁능유적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조선 궁궐을 활용한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은 궁중문화축전과 같은 문화제를 왕릉에도 적용시켜 지자체와 함께 왕릉문화제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정보기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체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체험은 앞으로 보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몰입도 높은 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다. 왕릉 활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지 못하는 장소(관람제한구역, 공중에서의 조감, 북한 개성에 위치한 제릉과 후릉 등)와 경험할 수 없는 시간(역사 속 어느 시점, 특정한 시간이나 계절)을 경험하게 하고, 발굴되지 않은 왕릉 내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궁능유적본부는 복원된 재실공간 등을 활용하여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Ⅳ. 마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데, 조선왕릉의 경우 현재 시점 그 활용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난 10년간 조선왕릉은 본래 왕릉 제도를 규명하고 그에 맞게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며, 여러 가지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조선왕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조선왕릉전시관 및 각 릉의 역사문화관이 건립되었고, 능마다 1년에 한 번 기신제로 치러지는 왕릉제향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반면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각 능관리소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9년 궁능유적본부가 출범하고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며 비로소 40기의 조선왕릉을 연계하고, 궁과 능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궁능유적 활용 계획과 실행을 시도하는 시점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대단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조선왕릉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릉의 활용에 있어 역사적 고증,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왕릉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즐거움과 휴식,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진정한 활용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궁궐과 왕릉 모두 이전 왕조시대의 이념을 잘 드러내는 유산인 바, 이러한 유산으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국가의 시민인 우리는 어떠한 의의와 가치를 받아들이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도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SESSION ❶ 주제발표 ❻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현황과 전망

박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팀장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현황과 전망

박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팀장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서원 :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

조선시대 서원을 대표하는 9개 서원이 2019년 7월 6일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란 명칭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 사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립된 남계서원, 교육내용과 장서의 관리가 탁월한 옥산서원, 학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던 도산서원, 서원 경제기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필암서원, 서원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한 도동서원,사림 공론 활동의 장소로서 기능한 병산서원, 사림 향촌 교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한 무성서원, 성리학에서 예학이라는 특정 분야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성리학사에 기여한 돈암서원, 이들 9개 서원들은 한국 서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 유산들이다.

〈표 1〉 '한국의 서원'을 이루는 9개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주요특징)

● 탁월한 충족 ◎ 평균 충족

구분	건립/사액	주향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림활동
영주 소수서원	1543/1550	안향	제도도입	●	●	●	◎
함양 남계서원	1552/1566	정여창	설립주체	●	◎	●	●
경주 옥산서원	1572/1574	이언적	출판활동	●	◎	●	●
안동 도산서원	1574/1575	이황	학맥형성	◎	●	●	●
장성 필암서원	1590/1662	김인후	운영방식	●	◎	●	◎
달성 도동서원	1605/1607	김굉필	교육체계	●	◎	●	◎
안동 병산서원	1613/1863	류성룡	사회활동	◎	◎	●	●
정읍 무성서원	1615/1696	최치원	교화활동	●	◎	◎	●
논산 돈암서원	1634/1660	김장생	예학심화	●	●	●	◎

〈표 2〉 '한국의 서원'을 이루고 있는 9개 서원

1. 영주 소수서원

2. 함양 남계서원

3. 경주 옥산서원

4. 안동 도산서원

5. 장성 필암서원

6. 달성 도동서원

7. 안동 병산서원

8. 정읍 무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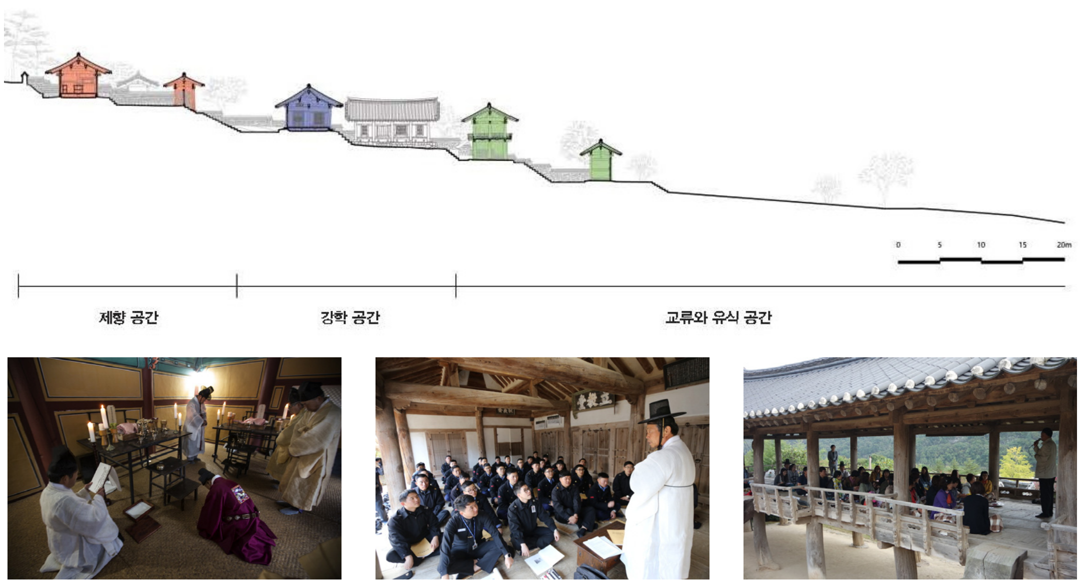
9. 논산 돈암서원

유학(儒學)은 공자(孔子, BC 551-479)에 의해 중국에서 창시된 정치철학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를 근거로 한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성리학(性理學)은 11세기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유학 사조의 하나이며, 12세기에 이르러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서원(書院)'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각자의 독특한 문화전통 속에서 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다르게 변해왔다. 중국은 송대에 사학을 시작으로 성리학 발전과 학문연구,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명·청대에 관학화 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고, 관료양성을 위한 과거시험 준비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학문의 영역 또한 다변화되어 주자학과 양명학, 고증학이 공존했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소수서원 건립 이후 성리학을 중심으로 사학[사립교육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며 심신의 수양을 통한 인격도야에 치중하였다.

– 서원의 주요기능과 공간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된 조선시대 성리학이 교육과 사회 활동의 증거로, 전국 각지의 지식인들이 제사와 강학을 통해 성리학 교육 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적합한 건물을 지어, 성리학 가치가 담긴 독특한 역사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보여준다. 서원은 조선사회에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향촌에 근거지를 둔 사림(士林)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선현(先賢)을 기리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며 인재를 교육하는 강당이 있는 강학공간, 존경하는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이 있는 제향공간, 그리고 유생들이 시를 짓고 토론도 벌이며 휴식하고 교류하는 유식공간으로 구성 되어있다. 서원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을 갈고닦는 인성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

〈표 3〉 서원의 주요 공간과 기능(병산서원의 제향, 강학, 유식)



2. 조선의 교육문화와 서원 교육

–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

조선은 건국과 함께 유교(儒敎)를 국시(國是)로 채택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유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건립과 과거시험을 통한 관료의 등용, 유교 관련 저서들을 간행 및 배포하는 등 유교 흥학책을 펼쳤다. 공립 교육기관은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 향교(鄕校), 사립 교육기관은 서원, 서당(書堂) 등으로 구분된다. 즉 고등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어 최고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사학과 지방의 향교와 서원이,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으로 각 지방의 군현마다 서당이 있었다. 이들 교육기관은 단계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다.

〈표 4〉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공립(향교), 사립(서원)]

구분	공립 교육기관 : 향교	사립 교육기관 : 서원
발생	고려 중엽 이전 (1142년)	백운동서원 (1543년)
교육 목표	관리 양성, 과거 준비	학문과 수양 (장수)
건립 장소	군현 소재지 (읍치)	선현의 연고지(산수가 수려한 곳)
좌향	남향 우선	자연지형 고려
제향 대상	성현(공자와 그 제자, 모든 향교 공통)	선현(스승, 서원마다 다름)
제향 공간	대성전, 동무, 서무	사우
강학 공간	명륜당, 동재, 서재	강당, 동재, 서재
유식 공간	미약	발달

유교 국가였던 조선왕조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유학은 그 출현과정에서부터 정치와 교육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학은 가르침[敎]과 배움[學]의 결합체라는 교육적 의미와 함께, 통치자가 백성에 대한 교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학의 이러한 근본을 알고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유학을 흔히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라고 한다. '수기'는 도덕적 성찰과 덕성의 함양을 요구하며, '치인'은 현실과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정치 논리이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교육은 한 손에는 도덕적 권위를, 다른 한 손에는 정치적 참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이러한 유학의 이상을 실현해 줄 가장 이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주목받았다.

- 서원의 발생과 전개

서원은 조선시대 16세기 중반부터 지방에 건립된 사립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비롯한 관학 교육기관의 쇠퇴에 따라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최초의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에 의해 설립된 백운동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은 고려 말의 학자인 안향(安珦, 1243-1306)을 모신 서원으로 1550년(명종 5) 풍기 군수로 새로 부임한 이황(李滉, 1501-1570)의 건의로 왕에게 '소수서원(紹修書院)'[1]이라는 편액을 사액(賜額) 받았다. 그 이후 서원들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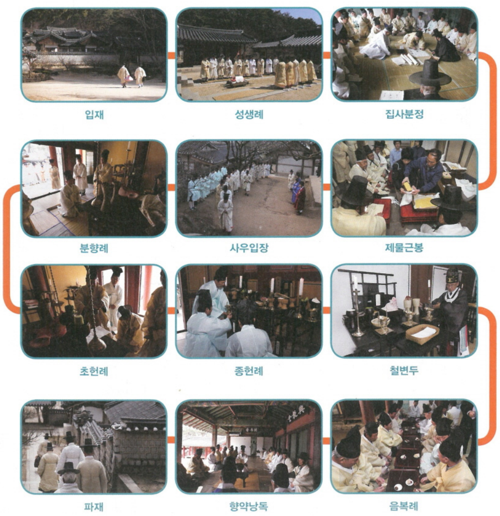
서원은 17세기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들의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서원의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을 모시는 서원이 무분별하게 첩설(疊設)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원이 지닌 본래의 교육 기능보다 제향을 위주로 변모되는 경향도 있었다. 서원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2]되면서 국가에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폐단을 야기하는 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 '소수(紹修)'는 "학문을 이어서 닦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19세기 후반에는 약 1,000여개의 서원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1871년(고종 8)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1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 서원을 훼철하여 전국에 47개 사원(祠院)만 남게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공식적으로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 교육은 근대 교육으로 변모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유교 교육기관들은 교육 기능은 중단되고 제향 기능만 보존되고 있다. 대체로 유교 관련 사업들이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산 활용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 서원의 주요기능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으로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림의 정치·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교류와 유식이 강조되었다. 서원에서 강학의 방식은 강회(講會)와 거접(居接)[3]이 있다. 강회란 서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물들이 모여 집단학습을 하는 것으로, 한자리에 모여 책을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는 공동의 학습형식이다. 거접은 사람들이 함께 기숙하며 학습하거나, 또는 과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비유하면 그룹스터디 같은 형식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대부분의 서원들은 강학(교육) 기능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문화재활용에 근거한 서원스테이 등이 일부 서원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서원의 제향 절차

제향은 유교의 예가 실천되고 의례화된 것으로, 제향을 통해 선현의 학덕을 추앙하고, 예를 중시하는 유교의 정신문화를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향은 서원과 연관된 학자, 혹은 관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균관, 향교와 유사하지만, 서원은 공자(孔子)를 비롯한 성현(聖賢)이 아닌, 지역과 밀접한 선현을 제향하며 대상도 서원별로 다양하다. 서원에서 원생들은 평소 강당에 모여 글공부를 하며, 매달 사당에서 삭망(朔望)에 알묘(謁廟)와 봄·가을 제향[4]을 지냈다.

교류와 유식은 지역 지성인들의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회합,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대부분의 서원들이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3) 거접(居接)은 주로 과거 준비를 위해 늦봄, 초여름 혹은 늦여름, 초가을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서원 이외에 서당이나 관학인 향교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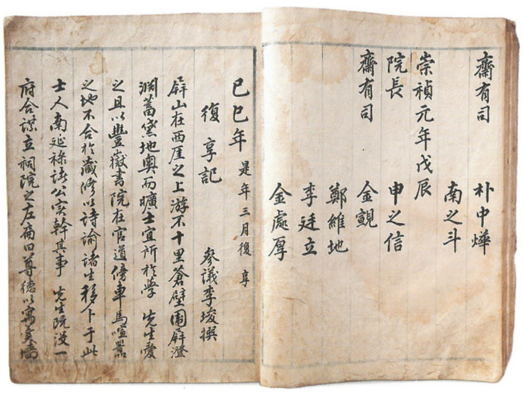
4) 서원의 제향 의례는 다음과 같다,
- 정기 : 매년 봄 ·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 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있다.
- 비정기 : 이안제(서원에 일이 있어 위폐를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모실 때), 위안제(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예성제(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 사액례(사액을 받을 때), 치제(국가에서 제관을 보내 지낼 때) 등이 있다.

되는데 이는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기 위함이다. 정자, 누각, 연못 등으로 이루어진 여가(餘暇)와 유식(遊息)의 공간이다. 유학에서 교육이란, 단순히 경전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성정(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공부로, 시위를 팽팽이 당기는 '장수(藏修)'의 과정분 아니라 시위를 풀어내는 '유식'의 과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 서원의 규율(規律)과 구성원

조선시대 서원은 주로 주희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기본으로 삼아 운영하였다. 이후 서원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 사회에 적합한 형식으로 이황, 이이(李珥, 1536~1584년)가 만든 서원의 원규(院規) · 학규(學規) 등은 다른 서원들의 표준이자 모범이 되었다.

서원의 구성원은 교육과 관리의 주체인 원장(院長) · 원임(院任)과 원생(院生)으로 구분된다. 서원의 원장은 원사(院事)를 총괄하며 서원을 대표하는 책임자다. 원장의 임기는 1-2년으로 서원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달랐으나 대체로 연임이 허용되었다. 원장을 도와 서원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을 원임(院任)이라고 하고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원임은 기본적으로 원내(院內) 규찰 및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며, 그 구성은 각 서원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들은 서원에 관한 운영뿐 아니라 수업 준비와 원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임원의 자격 · 임기 · 직임은 서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원장과 원임의 임명과 재직, 그리고 활동과 관련한 원장안, 원임안 등의 자료들이 남아있다.


[그림 2] 병산서원 원임록

[그림 3] 소수서원 입원록

원생은 주로 천거[5]를 통해 입학하였다. 서원의 운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인 도동서원 원규에 의하면 원생은 20세 이상인 자로 선발하였고,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천거하였다. 선정된 유생들은 성리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생에 선발되었다. 원생의 명단을 기록한 입원록(入院錄)[6]을 보면, 약 10여명 내외의 유생들이 매년 입원(入院)하였다. 선발 과정은 서원에서

5) 일반적으로 유생의 입원 방식은 대개 춘추 향사일에 각각 한 명씩을 원장에게 천거하도록 하고, 만약 천거자가 없거나 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가부를 의결에 부쳐 결정하였다.

6) 도동서원 입원록에 따르면, 입원은 천(薦) 또는 공천(公薦)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천거하는 사람은 원규의 규정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입원생의 숫자는 서원별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초기 주세붕이 지은 백운동서원 원규에 보면 입원자격[7]이 성균관과 거의 대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서원을 중앙의 관학인 성균관에 준하여 인재 양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 서원 교육의 지향점

서원 교육의 목표는 과거 준비가 아닌 성리학을 연구하고 선현(先賢)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황은 서원 교육의 본령을 자기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유교경전을 통한 내면 공부를 통해 성현의 길을 따라가는 도덕적 삶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업의 입지(立志)는 바른길을 향할 것이며, 공부는 목표를 원대히 하고 행동은 도의로 최선을 삼도록 하였다. 이욕(利慾)에 뜻을 두고, 성현을 무시하며, 경(經)을 어기고 도리를 저버리는 자는 과감하게 서원에서 내쫓도록 하였다. 또한 유생들과 유사는 서로 예절을 갖추어 접하며 공경과 신뢰로 대하도록 하였다.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에게 서원의 일이 아닌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사사로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도리를 배우도록 원생들에게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서원의 기록문화와 장서

–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과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원은 지역의 지성인들이 사회적 활동 장소로 교류했던 공간이자 여론과 공론의 모임장소 이기도 했다. 그리고 서원은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과 기록물, 무형의 제향 의례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해 준다. 서원은 서원마다 제향 의례와 의식, 관행을 지속하며 전승해왔으며,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서원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유형 요소들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정신과 감성, 기능, 연계된 사건과 역사적 인물 등이 모두 얽혀 총체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서원은 한국 유교 문화의 다양성과 유·무형 자료가 집약된 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높다.

서원은 이제 세계인들에게 공유된 교육문화유산이 되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교육문화유산은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건축물이나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교육정신까지도 중요한 유산이라 간주 될 수 있다.[8]

한명이 일반적이었으나, 많은 경우에는 3-5명까지 나타난다. 이외 당중의 논의로 일괄 천거하는 경우도 있다.

7) 원생들의 자격을 사마시(생원 · 진사시) 또는 사마시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의 승인을 얻어 입학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8)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이혜은,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2013.

- 서원의 도서와 출판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그 정신 가치와 교육 기능 못지않게 많은 고문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문서들은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1차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서원에 소장 되어있는 문서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창건 및 연혁, 조직과 운영, 경제, 교육·제향, 향촌사회사 등으로 자료가 다양하다.

〈표 5〉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 성격

구분	주요 내용	주요 관련 자료
서원 창건 및 연혁	서원의 역사를 기록	고왕록류
	주요사건(사액, 중건, 추향, 훼철 등)	사적 및 일기류 등
서원 조직과 운영	서원 임원과 원생들의 명단	원임안, 원생안, 임사록, 입원록
	인적 교류와 제향 참여자 및 방문자	알묘류, 심원록
서원 경제	전답의 규모와 위치, 경작자 정보 등	전답안
	노비의 소유 과정과 노비 정보	노비안
	노비들이 서원에 내는 경비	신공안
	서원 소유 재물을 인수인계	전장기, 도록 등
	기타 서원 경제 관련	원속, 속점, 속사, 기부·부조 등
교육과 제향	교육	거재록, 강회록 등
	성적 기록부	강안
	입원생 선발	천안
	제향	홀기, 제수단자, 제향절목 등
지역 지성사 활동	관에 청원하는 문서	소지류
	관에서 서원의 청원을 확인 후 발급	완문, 입안
	서원에서 의논하여 합의된 사항 기록	입의, 완의
	서원 상호간에 연락 문서	통문

서원의 고문헌 자료들은 크게 고서(전적), 고문서, 책판 등으로 구분된다. 당시의 자료들은 강학과 학문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집 또는 출판하는 방식 등으로 준비되었다. 서원은 학문연구를 위해 이를 위한 도서의 수집 및 열람 그리고 관리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 이는 오늘날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유사하다. 특히 서원의 서적 출판은 각 감영과 함께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 장소로서 문화 형성과 함께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몇몇 서원에서는 출판과 배포 기능도 함께하였다.

〈표 6〉 한국의 서원(9개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 현황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

서원 / 구분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전적	145책	147책	3,977책	4,605책	245책	23책	3,816책	8책	11책
고문서	110점	717점	1,156점	2,128점	64점	215점	5,906점	83점	76점
책판	428판	377판	1,123판	4,014판	616판	71판	1,914판	-	1,839판

4. 서원 교육의 현재와 계승

- 서원 교육과 근대 교육

교육방식은 시대에 따라 당시의 사회제도를 반영하며 변화해 간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교육방식이 지식 전달의 수직적 전수교육이라면, 조선시대 서원의 교육방식은 강론과 토론 중심의 수평적 개별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의 교육과 근대 교육의 차이는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의 병행을 통한 독서와 강회라는 두 가지 다른 교육방식의 차이에 있다.

근대 교육방식은 표준화된 교과교육으로 개인별 수준과 학습량에 상관없이 해당 학교의 학년수[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1~4학년]에 따른 학습이 정해진 교재를 통해 상하구조[선생님→학생]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또한 개인 학습량의 성취도와는 별개로 다음 단계[학년]로 정해진 학습이 진행된다. 그러나 서원 교육은 개인별 수준과 연령에 따라 교재와 진도, 평가방식까지 달리하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철저한 개별학습 과정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수평구조[학생↔선생님(스승)]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원에서 개별 독서에 대한 평가는 보통 월 1회 실시하여 해당 학습량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재평가하여 통과한 뒤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였다. 평가방식에서도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학습능력과 연령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서원의 문화자원과 활용[9)]

서원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서원 관계자나 후손, 일부 전문연구자들만이 서원의 가치와 내용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원 또는 유교 문화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서원의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계승하려는 의지, 나아가 이를 지속가능[10)] 하도록 활용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서원에 대한 현대적 교육과 활용방식은 제향 중심의 서원 기능,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제향 인물의 행적 소개로 비쳐진 측면이 크다. 서원문화는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황점검 연구에 의하면 ①

9) 본 내용은 서원에 대한 선행연구자의 발표내용을 재인용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한국서원학회, 한국서원학회보 제2호(이해준, 서원별 교육-홍보자료 편찬 방향), 2013.]

10)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은 등재된 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물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유의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119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sustainable us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산이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ecologically and culturally sustainable)'하고, '유관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ies concerned)' 그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지속가능'이란 해당 유산이 현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생태 및 문화적 관점에서 그 특성이 유지,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운영지침은 유산의 활용이나 용도 변경은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필요성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활용할 경우 그 유산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활용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상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2014.)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 활용 층의 제한 ②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 ③ 수직적 교육 중심의 정적인 분위기 형성 ④ 문화재, 인물 중심의 서원문화이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원 관련 기관에서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산·소수서원 등 일부 규모 있는 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험과 순례 프로그램이 비교적 좋은 호응을 얻는 편이지만, 아직도 서원문화 소재의 활용이나 아이디어 개발 측면에서 숙제가 많다.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서원 스테이의 효율적 운영=서원별 특성이 부각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다.

〈표 7〉 '한국의 서원' 2020 세계유산 등재 축전행사 프로그램(개별 서원의 특징을 살린 해당서원 주최행사)

구분	개최일	행사명(주요 행사)
영주 소수서원	07/04	제향으로 올리는 사은(師恩)
함양 남계서원	07/10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한시 백일장대회)
경주 옥산서원	10월 예정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한·중 학술대회)
안동 도산서원	07/02	인류 보편의 삶을 만나다(도산서원 전시회)
장성 필암서원	10월 예정	제향 행사 참여
달성 도동서원	07/11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도동서원 과거제 재현)
안동 병산서원	07월	서애 선생의 나라사랑(충효기행 프로그램)
정읍 무성서원	07/10	국악은 풍류를 타고(경축공연 국악 한마당(KBS))
논산 돈암서원	07/09	사람됨을 위한 정성(돈암서원 예절교육)

서원의 문화자원은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은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 재생과 활용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또한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서원의 활용, 계승도 활성화 될 수 있다.

- 서원 교육의 현대적 계승

조선시대 서원의 교육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품격 높은 선비 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원 교육에서의 학습방법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실을 넘어 참다운 정신과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서원 교육에 관한 선구적 연구자들이 제시한 서원의 교육사적 연구관점 세 가지를 그대로 인용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서원 교육에 관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조선시대 서원이 추구했던 목표와 그 철학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서원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이다. 서원 교육이 과연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생성, 발전, 변화, 소멸이 과정을 거쳤는지 구명하는 것이다.

셋째, 서원의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선시대 서원과 서당 혹은 향교에서 사용한 모든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시대 서원 교육을 통해 오늘날 현대사회의 교육에서 상실된 소중한 가치들을 새롭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스승과 제자의 전인격적(全人格的) 만남[11]을 통한 정신의 성숙 등은 서원 교육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 준다. 서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서원이 지금도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교육에 대한 활용은 미래 세대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서원 교육의 옛 유산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서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서원의 기본정신과 올바른 역사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2019.
2. 서울시, 성균관 문묘 관련 자료조사 계획, 2017.
3.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서원등록 1, 2015.
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정순우,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 2014.
5. 한국의 서원 도록(1 현판과 기문, 2 고문서 · 고서 · 책판 3 제향의례), 2014.
6.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이상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2014.
7.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이혜은,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2013.
8. 한국서원학회, 한국서원학보(韓國書院學報) 제2호, 2013.

11) 서원에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학문의 단계를 깨우쳐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한유(韓愈, 768-824)의 사설(師說)에 의하면, 스승의 역할은 '도(道)를 전하고 업(業)을 전하며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황은 스승을 산속의 옹달샘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였다. 즉 스승은 마치 산 속의 샘터와 같아,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분량만큼 물을 마시고 떠나가는 터전으로 비유된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동도(同道)'의 길에서 서로의 완성을 도와주는 상보적인 관계이자 전인격적인 관계이다.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❶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문

신영주
수원지기학교 교장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❶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토론문

신영주
수원지기학교 교장

최근 인구 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및 가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인 수원화성박물관 백진주전문위원의 “지역문화와 연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역박물관의 역할, 오늘날의 지역박물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진행해온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시해 주셨다고 본다.

토론자인 저도 수원에서 약 20여 년 간 지역주민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활동을 해왔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제자의 연구물을 살펴보았고 그 고민에 공감하였다.

지난 2019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에 의하면, 그동안 꾸준한 문화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2018년 말 현재 총 1,124관(국립 50관, 공립 416관, 사립 539관 및 대학 119관)의 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873개의 개관해 있다. 박물관은 자료의 소장, 보존, 전시, 조사, 연구 등 고유 기능과 함께 대중을 위한 체험·교육 및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발제자가 초록에서 밝혔듯이 “박물관 교육은 이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은 박물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2009년에 건립된 수원화성박물관이 지역의 문화 발전에 디딤돌이 되려는 모습, 지역민과 함께 하는 최상의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모습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무척 믿음직스럽기까지 하다.

발제자는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을 중심 배경으로 정조와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원화성의 보조적 매개체 역할로써 현지 지역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문화를 재창조해 나가는데 있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수원화성이라는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전달해야 하는가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와 교육대상이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취지대로 화성 축성 과정에서 나타난 수원의 도시계획이 실학사상, 민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수원이라는 도시는 어떤 가치 속에서 도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지 등이 실제 교육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김희태 등(1998)의 연구에서 보면 문화재 학습은 유물이나 유적을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되기 보다는 그 유물이나 유적을 만든 집단의 후손에게 유물이나 유적의 가치를 감상하고, 그것의 보존을 통한 ‘정체성 확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박물관의 경우는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지역민의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하게 된다.

발제자는 박물관이 여러 여건상 일회성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들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교육프로그램을 박물관 측에서 만들어 관람객이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첫 번째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둘째 지역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세 번째로 제시한 프로그램 홍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본다. 지역의 교육전문가, 학교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예술인, 문화기획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박물관 교육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 예술이나 산업 분야도 개방을 통해서 융합과 복합이 하나의 큰 논의거리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개방적 입장에서 늘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담은 남한산성,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장소인 남한산성에 박물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조용히 해야 하는 박물관, 설명만 가득한 박물관에서 벗어나 신나는 박물관, 흥미진진한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수원화성 박물관의 고민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연대를 통해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통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담은 박물관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❷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의 의미와 확장 가능성

길지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❷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의 의미와 확장 가능성

길지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상임간사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 수원 화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서원 등 여러 세계유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허진이 주무관님께서 보내주신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교육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원고를 읽고, 제주도의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다각화된 시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고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유산 관람을 위한 교육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가 동참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유산 관람 교육의 경우, 유산 보전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개발해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제주 자연유산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제주어 영어캠프, 어린이해설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임이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제주도의 사례에서 비롯하여, 제가 세계유산 교육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관점으로 평소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고려해오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 교육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유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산 교육은 유산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유산협약의 목적,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하고도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는 유산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에, 장기적으로 교육은 세계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유산을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호하는 의지로 이어지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논문에서는 유산 보호에 대한 의지가 recognition, emotion, action의 세 단계로 진행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을 통해 해당

유산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실천하는 단계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계유산 교육은 이 단계들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계유산 등재 후 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주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미 유산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또 보전 의지도 성숙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 뉴스 기사에서 세계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이 유산 주변 개발사업을 경계하며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그에 맞추어 스스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개론 성격의, 처음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접 필요성을 느끼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예산 구조상 하향식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치로, 또는 주민의 제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상향, 하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산 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이 동일한 가치를 목표로 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주도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오신 것처럼, 향후 유산과 함께 살아갈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박물관이나 관련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방식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게임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 콘텐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유산에 대해 설명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나 어린이 안내판을 봐도 수록된 글 시작부부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바로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읽고 외우고 따라 쓰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설명되는 용어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도록 다시 한번 고려되고 피드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체를 다 알게 하기보다는 왜 이런 유산이 형성되었는지 배경부터 시작해 조금씩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세계유산이 좋은 곳이고, 편안하고, 오래 머물고 싶고, 자주 가고 싶은 장소로 인지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셋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도 향후 좋은 교육과 전시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정말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왔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들을 아카이빙 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년만 지나도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장소별로 그동안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추적해보는 것은 장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내용은 기록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아카이빙 체계를 잘 정리해보면, 공간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지속하여 남기는 콘텐츠가 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교육 및 전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유산은 당연하게도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동향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여러 세계유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서로간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교육 현황과 전망

박제광
건국대박물관 학예실장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교육 현황과 전망

박제광
건국대박물관 학예실장

이 글은 그간 남한산성에서 추진해 온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건립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 추진해야할 박물관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치는 동아시아의 무기 발달과 축성술의 변화가 담긴 군사문화유산이며 조선의 주권 수호를 위해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라는 점이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천연 요새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오랫동안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함께 간직하면서 국가 ·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해 온 소중한 군사유산이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역사 · 문화적 가치의 지평을 넓히고 유산의 보편적 가치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의 하나가 세계유산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교육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전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필자가 현재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학예사로 근무하며 실제 운영하셨기에 논문에 그 경험치와 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전체적인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반론을 제시할만한 내용은 없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코자 한다.

1. 본 논문에서 시기별로 등재 이전, 등재 이후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 프로그램 취지나 성과는 정리되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횟수, 만족도 등이 분석 내용에서 빠져 있다. 실제 최근 관련 논문에 따르면 남한산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및 인지도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 회당 참여인원, 참여 동기,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개선 노력(피드백) 등이 심층적으로 분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2. 남한산성의 교육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학술연구와 일반 성인대상 강좌,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전시형 및 공연형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하면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시기별, 대상별, 형태별, 성격별 구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문화유산교육을 전담할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문화유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남한산성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현행사, 공개행사, 공연 등이 주를 이룬다. 남한산성에 왔던 방문객들이 와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홍보물을 보고 참여하기에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 행궁 등 시설의 방문객과 참여도는 관련이 있다. 관람객 감소가 프로그램 참여 부진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변화 없는 프로그램이 관람객 부진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역사문화관 건립 이후의 박물관 교육의 변화와 전망에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질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질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5. 필자는 "교육콘텐츠가 유튜브나 SNS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박물관 전시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직접 장소에 가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 형태의 남한산성 답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토론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박물관의 화두는 실감콘텐츠이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박물관에서도 VR, AR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산성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하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그리스의 MOPTIL(https://moptil.com)이란 단체는 고대 그리스 유적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증강 및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고대 그리스의 사원과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 경험할 수 있는 현장 비쥬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유적의 원래 건물 모습, 동상 및 조각을 360°로 시각화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실감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와 관련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6. 마지막으로 최근 박물관은 쉬움(easy), 재미(fun), 자유롭고(Free)라 키워드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의 전시로부터 정보제공, 체험, 교육 등 박물관 전 영역이 엔터테이먼트가 기본이 되어 관람객과 소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의 교육도 이러한 경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학예사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❹

세계유산의 기초를 바탕 삼은 교육 및 가치 확산

김안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연구원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❹

세계유산의 기초를 바탕 삼은 교육 및 가치 확산

김안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연구원

이집트의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으로 시작된 세계유산 사업은 유네스코의 많은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그 유산을 만들어낸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과거에는 유산의 물리적 보존에 주력했다면, 근래에는 유산의 지속가능성과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체가 전문가 및 국가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유산 보존 및 보호 활동에 힘쓰고자 유네스코에서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캠프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이 현세대의 취향과 관심을 반영해 진행하는 활용사업들이 눈에 띈다.

세계유산을 이용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과거의 표지판, 책자 등 아날로그 기술에 기대왔던 전시 및 체험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ICT를 활용한 3D, AR 및 VR로 보다 다각적이고 생생한 경험으로 세계유산을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들과 더불어 이미 여러 형태의 교재와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기술도입과 분야 간의 융합을 시도한다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한국사 및 지역사에 국한된 세계유산의 해석과 해설방식을 벗어나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 세계시민교육, 문화간대화의 매개로서의 세계유산의 활용도 함께 추구한다면 더욱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세계유산의 가치확산과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계시민적 관점에서의 세계유산 교육 시행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등재국의 자랑이자 해당 지역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등재 이후 지자체, 언론 등의 지나친 선전 및 관광자원화 등을 거치며 자국 및 지역의 유산에 대한 우월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한 자국 세계유산을 활용한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역사라는 한정된 분야에서의 활용이 주를 이루는바, 이는 앞서 말했듯이 해당 유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이 보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가 지역 및 국가의 경계를 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인류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확인해준다.

세계유산협약 체결 2년 후인 1976년, 제18차 유네스코 총회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국제이해 및 문화간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중시해야 한다."며 서로의 시각과 생활방식의 차이에 대한 교육을 문화유산을 매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을 적극 반영한 교재 등 콘텐츠의 추가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교육자들의 OUV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 교육자들에게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의 세계유산의 가치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다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세계유산이 주로 활용되는 "역사" 외 도덕, 사회, 지리 등의 과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유산이 내재하고 있는 사회, 역사, 가치, 종교, 경제, 예술, 건축, 이념 등의 여러 요소에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은 단일 주제 내에서의 다양성, 또는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렇기에 여러 주제와 과목에 걸친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유사한 주제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름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중심 매체로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를 통한 상호존중과 이해,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유산적 가치의 지속성 및 확장에 대한 관찰 및 실행이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는 관점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브랜드를 눈여겨보는 경향과 함께 세계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관련 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유산의 일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특히 관광산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해석과 활용이 주로 정부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는 특성과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는 해당 사업들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보편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우리 모두의 유산임을 공표하는 동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 확장 그리고 전승이 이뤄져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업공급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세계유산이 단순 사업 및 성과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을 현대 사회와 공생하며 미래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개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세계유산적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된다면 수요자들 또한 세계유산을 한순간 지나가는 오락과 유흥의 대상 보다는 공생의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세계유산에 담긴 다양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래로 이어질 세계유산의 의의와 존재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시작해 1인 기업 등의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경향으로 미루어보아,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을 다루는 콘텐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콘텐츠를 양분으로 삼은 풍부한 사업 운영사례는 충분히 쌓였다. 이미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 도입이 이루어졌기에 세계유산 콘텐츠 차별성은 기술의 발전 외에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소견이다. 보존 및 활용 중심의 접근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유네스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집중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대표적 세계유산인 남한산성도 이 부분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soft power)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비춰지는 성곽유산의 범위에서 벗어나 여러 기록물을 통해 산성 속에서 이루어졌을 삶의 방식과 군사, 종교 및 산성문화 등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는 세계유산으로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취자로 하여금 상상에만 맡기는 먼 과거가 아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발표자들이 예시로 든 세계유산 교육 및 콘텐츠에 덧붙여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세게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면 세계유산은 단순히 관광수익을 증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관련 공동체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나 놓치기 쉬운 요소를 사로잡아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질의〉

발표자료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듯,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국내 세계유산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콘텐츠

대상이 되며 백제세계유산센터가 그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3-5년 간 센터에서 진행한 세계유산 사업 중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적 관점을 가장 잘 나타낸 사업을 소개해주시고 사업취지가 얼마나 잘 전달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향후 세계유산 사업을 구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❺

김수환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학예사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❺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

심준용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A&A문화연구소 소장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토론문 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

심준용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겸임교수·A&A문화연구소 소장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경기문화재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박진재 선생님의 원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간의 연구 성과와 활용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비춰봤을 때, 떠오르는 몇몇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서원'의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입장료 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한 세계유산의 경우, 적정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제공할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한 경우에 무료이거나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소재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복지 차원 혹은 방문객 감소 등을 우려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무료 혹은 저렴하여 문화유산을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무료정책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품격이 저하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무료정책으로 많은 방문객을 확보하는 정책보다는 문화재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서원'의 경우엔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관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의 교육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차별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할까요?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진정성유지에 부적절한 공연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강학'기능을 되살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등재신청서상에 언급된 프로그램과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타 서원에 비하여 깊이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서원의 강학 방법 '독서'와 '강회'를 적용시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세계유산으로서 서원의 보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시대에 '한국의 서원'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소의 서원은 대체로 숙박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연계된 다양한 유산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유산은 자칫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주변으로 다양한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예정중인 상황이 많고, 인물, 건축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문화복지형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팬데믹시대에 언택트한 관광자원으로서 여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경우 유교유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MEMO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2020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발행일 2020년 9월 25일
발행처 경기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연구원
디자인/인쇄 디자인세창(1544-1466)